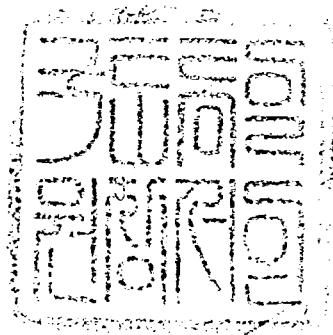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5. .



研究機關：釜山大學校 韓日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金 廷 鶴
研究員：申 昌 淳

目 次

| | |
|------------------------|----|
| 머릿말 | 3 |
| 本 論 | 5 |
| I. 歷史学 | 5 |
| 1. 広開土王陵의 共同調査問題 | 8 |
| 2. 任那問題의 共同研究 | 17 |
| II. 考古学의 共同調査 | 28 |
| III. 結 論 | 31 |

— 言語學 —

차 례

| | |
|-----------------------------------|----|
| I. 序論 — 國語研究의 두개의分野와 學術的인 | |
| 國語研究分野의 學術交流 實施方案 — | 35 |
| II. 北韓에서의 國語規範化를 위한 研究와 成果 | 41 |
| III. 規範的인 國語研究分野의 學術交流 實施方案 | 61 |
| IV. 交流方案에 따른 實踐의 한 具體的인 例示 | |
| — 統一맞춤법 規範集 作成의 경우 — | 70 |

머 리 말

南北韓은 오랜 歷史에 있어서 民族的 文化的으로 하나의 共同体를 이루어 왔다. 民族的으로는 身長, 頭型, 頭髮組織, 鼻形, 眼形 등에 있어서 北方蒙古種의 體質的 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言語에 있어서는 알타이語族에 屬하고, 習俗에 있어서는 北方亞細亞의 諸民族과 共通되는 것이 많이 있다.

위와 같이 韓國民族은 體質的 文化的으로 北方亞細亞族이 主流를 이루었다. 이 밖에 中國 楊子江 以南 東南亞細亞에 걸친 이른바 南方族의 要素가 약간 있으며, 또 極히 微弱하나 이밖의 다른 民族의 要素도 섞여 있다. 그러나 알타이族의 體質的 文化的 特徵이 支配的으로 되어 다른 要素들을 融合하여 單一民族으로서의 同質的文化를 形成하였다.

어느 民族이나 絶對的인 單一民族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다른 民族에 比하여 韓國民族은 놀라울 정도로 民族構成이 單純하다. 이러한 單一民族의 특징이 同質的인 文化를 形成하는데 有利하였으며, 또 文化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 있어서 民族構成이 複雜하고, 言語와 文化가 多種多樣하여 文化 發達에 많은 支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解放以後 國土의 分斷으로 南北韓으로 갈리고, 政治 體制를 달리 하므로서 文化的으로도 점점 差異를 나타내어 가고 있다. 南北韓이 政治的으로 하루 빨리 統一되어야 될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나,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에 있어서도 文化的으로 異質化되는 것을 하루 바삐 막아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南北韓이 民族的 文化的으로 하나이라는 意識을 鼓吹하는 것이 統一에의 도움이 될 것이다.

南北韓의 交流에 있어서는 우선 非政治的인 分野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우리 政府에서도 이러한 方向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関心을 가지고 있는 文化交流에 있어서 우선 가장 民族意識, 民族精神을 북돋는데 必要한 歷史學(考古學包含), 言語學의 分野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本 研究에 있어서는 이 分野에 對한 南北韓의 現在까지의 研究 傾向과 成果를 考察하고, 南北韓의 相異點, 問題點을 摘出하여 南北韓 學者들이 交流 研究할 方案을 論하겠다.

本 論

I. 歷 史 學

北韓에 있어서 學術研究는 黨(勞動黨)의 統率下에 있는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리하여 歷史學은 社會科學院의 歷史研究所에 屬해 있고, 考古學은 같은 社會科學院의 考古學 및 民俗學研究所에 屬해 있다.

歷史學(考古學包含)은 다른 學問에 있어서와 같이 오로지 唯物論 또는 史的唯物論을 基本原理로 하고 있으며,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奉仕하는 것을 最高의 目標로 삼고 있다. 金錫亨은 그의 著「初期朝日關係研究」(社會科學院出版社 1966年刊, 日訳「古代朝日關係史」(勁草書房 1967年刊)에서

「이 初期朝日關係問題에 있어서도 日本의 學界에 追從하는 者が 南韓에 있다고 하는 事實은 遺憾된 일이다. 그들 중에는 學問을 政治로부터 獨立한 것으로 생각하고, 日本人 學者들의 說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者도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政治로부터 獨立한 그 불쌍한 學問으로서 結局 美·日帝國主義者가 祖國의 땅을 죄다 빼앗으려고 하는 政治에 奉仕하고 있는 것이다.」
(日訳本으로부터 韓訳하였음)

라고 하여 學問이 政治로부터 獨立하는 것을 非難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또 그 冊에서

「우리 朝鮮勞動黨 第四次 大會에 있어서, 金日成 동무는 우리 民族文化를 全面的으로 繼承 發展시키는 것에 關한 課題를 提示 하였다.」

云云하여 歷史學이 金日成의 思想에 따라야 될 것을 強調하였다. 위와 같은 金錫亨의 著書의 引用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歷史學이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歷史學 研究는 上記한 바와 같이 唯物史觀에 立脚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歷史를 階級鬭爭의 歷史라고 보고, 歷史에 있어서의 모든 事象을 그러한 公式에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 우리 南韓의 歷史學과 다른것이 있다. 우리는 階級이라는 것도 民族의 歷史生活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全体로서의 民族이 優位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歷史 發展이 物質的 生産에 依存하는 바가 큰 것은 事實이지만 그것이 全部는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歷史는 物質的 生産과 精神的 意志가 相関關係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또 오늘날 歷史學은 近代의 科學으로서 實証的인 方法에 따르고, 따라서 어디까지나 歸納的 方法에 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的 事實을 어떤 思想的 公式의 틀에 맞추려고 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反對로 그러한 歷史的 事實로부터 歸納的으로 어떤 結論에 到達하여야 될 것이다. 歷史學의 研究가 政治的 目的에 依하여 歪曲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다만 歷史學의 研究 結果가 政治的 目的에 利用하는 것은 그 사람의 自由일 것이

다. 우리는 歷史學의 研究에 있어서 오늘날 到達한 關聯 學問의 成果를 援用하여 歷史的 資料속에서 眞實을 찾는 努力을 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自由世界에 對한 閉鎖政策으로 因하여 歷史學界는 오늘날 世界의 學問 研究가 到達한 成果를 充分히 利用하지 못하고 있어 學問의 水準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解放後 北韓의 歷史學 研究는 큰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考古學研究는 많은 土木工事로 因한 遺蹟의 발견으로 重要한 資料들이 알려졌다. 그러나 考古學 역시 오늘날 世界의 考古學研究가 到達한 成果를 充分히 利用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며, 따라서 重要한 資料를 올바르게 解釋하지 못하고 있는 點도 있다.

하여튼 北韓에서 발견된 새로운 考古學的 資料들은 南韓의 先史文化에 直接的으로 連關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考古學研究에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現在와 같은 南北交流가 斷絶된 狀態下에서는 이러한 北韓의 考古學的 資料를 入手할 수 없는 形便에 있다. 또 北韓의 考古學研究도 南韓의 새로 발견된 資料들이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우리 나라의 文化는 先史時代로부터 南北이 하나의 文化圈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事情으로 因하여 우리는 北韓의 歷史學(考古學包含)의 資料를 直接的으로 入手하지 못하고 있는바, 다만 日本에서 翻譯 또는 紹介된 資料에 依하여 北韓의 歷史學界의 動向 또는 成果를 아는 정도이다. 本 研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間接的인

資料에 依하여 北韓의 歷史學(考古學包含)의 現況을 살피 본 것이다. 그 중에서도 本稿에서는 南北韓間에 共同研究 또는 共同調査할 必要가 있는 數例만을 들어서 論하였다.

1. 廣開土王陵碑 共同調査의 問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과 南韓은 歷史學研究의 基本原理와 目標와 方法이 다르다. 그러므로 南北韓이 共同으로 研究 또는 調査할 對象은 極히 限定되어 있다.

高句麗의 廣開土王陵碑는 高句麗의 서울이었던 現在의 滿洲 輯安縣 通溝에 있다. 이 碑는 高句麗 歷史上 不世出의 英主 廣開土王의 偉業을 稱頌하기 위하여 王의 死後 二年, 즉 西紀 414 年에 세운 것이다. 6 m 餘의 巨大한 自然石의 四面에 雄勁한 漢隸體로 1,802 字를 새긴 것이다. 高句麗가 7 世紀 中葉에 滅亡된 後 이 碑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廢墟에 서있어서 오랫동안 後世人의 記憶으로부터 忘却되어 있었다. 高麗時代에 쓰여진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도 이 碑石에 記錄된 高句麗의 史料를 資料로서 採擇하지 못하였다. 이 碑에는 아래서 자세히 論할 것과 같이 高句麗의 歷史뿐 아니라, 高句麗와 新羅, 百濟, 加耶 및 倭와의 關係도 記錄되어 있어서 三國時代의 歷史에는 대단히 重要한 資料인 것이다. 이러한 重要한 史料가 三國史記나 三國遺事に 全히 採錄되지 않은 것은 이 碑가 高麗時代에 全히 알려지지 않았던 까닭

일 것이다. 다음 李朝時代의 文獻에는 이 碑의 存在가 言及되어 있으나, 그 碑가 高句麗 廣開土王의 碑石이라는 것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1880年 前後에 清代의 學者들에 依하여 이 碑가 注目되어 拓本이 行하여졌다. 또 1884年에 이곳에 密偵으로 派遣되었던 當時 日本 陸軍參謀本部 酒匂景信中尉가 拓本 一部를 求得하여 日本에 가져오므로서 이 碑가 日本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이 碑는 上記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風雨에 씻겨 돌이 侵蝕되고, 글자가 磨損되어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게 되었다. 그 위에 1880年代에 地方住民에 依하여 처음 발견되었을 때, 碑石에 덮여 있던 靑苔를 除去하기 위하여 不注意하게도 糞을 石面에 바르고 마른 뒤에 불로 태웠으므로 石質에 금이 가고 돌조각이 떨어져나간 곳도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石面에 凸凹가 생기고, 文字가 剝缺된 곳이 있어 拓本이 어렵고, 不完全하게 되었다. 이러한 難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或은 石面의 凹部에 石灰를 바르고, 或은 雙鉤加墨에 依하여 字劃을 浮刻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拓本의 難點으로 因하여 1880年代 以後에 行한 拓本에 異同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위와 같은 拓本時의 補完에 있어서 或은 無意識的으로 誤謬를 犯하고, 或은 意識的으로 捏造할 可能性이 있게 된 까닭이겠다.

廣開土王陵碑는 碑文內容으로 보아 大體로 三段으로 나눌 수 있다. 前段은 高句麗 始祖 鄒牟王의 伝說이 記錄되었고, 中段은 廣

開土王의 偉業, 주로 領土擴張을 위한 戰爭記錄이고, 後段은 王의 陵墓의 守護人에 관한 規程을 記錄하였다. 그런데 이 碑에 있어서 問題되는 것은 中段의 戰爭記錄인데, 특히 倭에 關係된 記事이다. 中段의 碑文에 있어서 倭에 關係된 記事가 네번 있는데, 그 글자가 拓本에 不明한 것이 있을 뿐 아니라, 疑心되는 곳도 있다. 이러한 句節에 對하여 北韓의 歷史家 中에는 說法을 從前과 달리하여 다른 解釋을 主張한 사람이 있고, 또 最近 朝 總聯系의 僑胞學者 中에 이 碑文을 日本人들이 造作하였다는 主張을 발표한 일이 있다. 前者의 研究는 朴時亨의 「廣開土王陵碑」(社會科學出版社, 1966)와 金錫亨의 「初期朝日關係研究」(上掲)이고, 後者는 李進熙의 「廣開土王陵碑의 研究」(日本, 吉川弘文館 1973)이다.

이 碑文에 있어서 倭에 關聯된 記事는 다음과 같다.

가)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 破百殘□□新羅. 以爲臣民.

여기서 百殘이라고 한 것은 高句麗가 百濟를 仇敵으로 여겨 나쁜 글자를 쓴 것인데, 하여튼 百濟와 新羅가 옛부터 高句麗의 屬民으로서 由來로 朝貢하였다는 것은 誇張된 表現이다. 왜냐하면 當時의 三國關係를 보면 新羅는 高句麗와 同盟關係에 있었으며, 百濟는 高句麗의 南侵勢力을 막고, 때에는 平壤附近까지 쳐들어갔던 好敵手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新羅가 高句麗의 屬民이었다는 表

現도 약간 誇張된 것이어니와, 더우기 百濟가 高句麗의 屬民이었다는 表現은 誇張을 지난 不當한 表現이다. 이것은 물론 高句麗의 威勢를 자랑하기 위한 表現이었을 것이다.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 아래 句節이다. 즉 「倭가 辛卯年에 바다를 건너 百濟, □□, 新羅를 쳐서 臣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辛卯年은 西紀 391年인데, 이 때에 倭가 百濟, 新羅등을 쳐서 臣民으로 삼았다는 것은 역시 誇張된 表現이다. 왜냐하면 이 當時의 倭와 新羅는 敵對關係에 있었으나, 倭와 百濟와는 同盟關係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倭가 百濟를 쳐서 臣民으로 삼았다는 것은 事實과 다른 表現이다.

하여튼 이 句節로 因하여 日本의 御用學者들은 日本이 古代에 南韓을 支配하였다는 証拠資料로 삼았던 것이며, 韓國學者들은 이 句節의 「臣民」云云의 表現에 神徑을 過度하게 썼던 것이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當時에 倭는 百濟와 同盟關係에 있었으며, 新羅는 倭의 強敵으로서 한번도 倭에 降服 또는 征服된 일이 없었으므로 「臣民」云云은 있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이 句節만 가지고는 日本의 南韓支配說이 成立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碑文에는 倭가 뒤에 여러번 高句麗에 慘敗를 당한 것이 뚜렷히 記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句節에 對하여 韓國學者들은 「臣民」云云의 말에 지나치게 神徑을 써서 이 句節을 否認할 根拠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北韓學者 中には 이 句節의 說法을 다르게 하였다. 즉

朴時亨, 金錫亨들은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의 句說點을 「倭以辛卯年來. 渡海破. 百殘□□新羅 以爲臣民.」이라고 달리 하였다. 즉 「倭가 辛卯년에 왔다. 高句麗가 바다를 건너 倭를 쳤다. 高句麗가 百殘, □□, 新羅를 쳐서 臣民으로 삼았다.」라고 읽은 것이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위와 같은 漢文文章의 說法으로서는 無理가 있다. 渡海破의 主語를 高句麗로 보는 것도 漢文語法上 無理가 있다.

우리는 上掲한 바와 같이 이 句節을 順理로 읽고, 辛卯년에 倭의 侵入을 認定하는 見解를 取한다. 다만 그 侵入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日本의 古代 南韓經營說의 根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北韓系學者 중에는 이 句節이 不合理하고, 碑文에 있어서 辛卯年の 「辛」字와 來渡海의 渡字가 不分明하다고 論하고, 또 上掲한 바와 같은 拓本은 日本人이 碑石에 變造를 加한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李進熙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1973年參照). 이 碑石을 拓本하는데 있어서는 或은 碑面의 缺落한 部分에 진흙으로 메꾸고, 或은 凹凸의 部分에 石灰를 칠하여 글자를 鮮明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1913년에 이 碑를 調査한 日人學者 今西龍道 「廣開土境好太王陵碑에 就하여」라는 記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原碑面대로 拓本을 만들면 不鮮明한 것이 甚하고, 字形도 明瞭하지 못한 것이 많은 까닭에, 碑面이 깊이 缺落한 第一面의 一

部 같은 것은 진흙으로 이것을 메우고, 또 四面에 다 石灰를 말라서 字形만을 나타내고, 字外의 碑面의 小凸凹를 메워서 이것을 평평이 하여 다만 拓本을 鮮明이 하기에만 힘썼다. 그러므로 글자 中에는 尙혀 工人의 손으로 造作된 것이 있고, 一部分의 修補한 것에 이르러서는 더욱 甚한 것이 있다.」(朝鮮古史의 研究)

위와 같이 1913 年에 日人 學者 今西 訖이 碑를 實地 보았을 때에도 拓本을 鮮明히 하기 위하여 石灰를 바르고, 造作한 痕跡이 보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廣開土王陵碑는 위와 같은 여러가지 條件으로 因하여 意識的 또는 無意識的으로 造作될 可能性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碑를 南北學者가 或은 可能하면 日·中學者들과 함께 現地에 가서 實際로 共同調査할 것을 提議하고 싶은 것이다. 더우기 이 碑가 現在 中共의 領土인 滿洲에 있기 때문에 우리 南韓 學者로서는 實地 調査할 條件에 있지 못하는 바이나, 北韓으로서도 그 調査의 交渉에 있어 우리보다 有利한 條件에 있다. 이 點에 있어서도 이 碑의 南北韓 共同調査研究는 바람직한 것이다. 또 이러한 共同調査研究는 韓國의 歷史를 日本人들의 歪曲에서 바로잡는 共通된 民族的 使命이므로 同一한 步調를 取할 수 있는 課題라고 하겠다.

나)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共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

九年己亥는 西紀 400 年인데, 이 때 「百濟가 高句麗에 對한 盟誓를 어 기어 倭와 和通하였으므로 王이 軍사를 이끌고 平壤까지 南下하였다. 그리하여 新羅가 使臣을 보내어 王에게 아뢰기를 倭人이 그 國境에 가득하여 城池를 潰破하고 奴客(新羅)을 民으로 삼았으니 救援을 請하였다는 것이다. 이 句節은 分明히 百濟가 倭의 軍사를 要請하여 新羅를 饒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新羅는 高句麗에 救援을 要請하였는바, 이것은 이때의 情勢로 보아 틀림 없는 歷史的 事實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倭가 新羅의 城池를 潰破하고 新羅를 「民으로 삼았다」云云한 것은 高句麗의 同情과 救援을 얻기 위한 誇張된 表現임에 틀림 없다. 이 碑文에 對하여 北韓學者中에는 「倭人滿其國境」의 글자가 拓本에서 分明치 않다는 意見이 있다. 이 點도 實地로 이 碑를 調査하지 않고서는 우리로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하여튼 다음 句節에서 보는 바와 같이 翌年에 高句麗가 步騎 5 萬을 보내어 新羅를 救한 것은 事實이다.

다) 十年庚子. 敎遣 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兵方至. 倭賊退(不明文字略). 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拔新羅城. (下略)

十年庚子是 西紀 401 年으로서 前條의 記事에 계속되는 것이다.

즉 前條의 新羅의 要請에 따라 「高句麗가 步騎 5 萬을 보내어 倭와 百濟, 加羅의 聯合軍의 饒다. 高句麗軍이 男居城으로부터 新

羅城에 이르니 倭가 그 안에 가득하였는 바, 高句麗軍이 이르니 倭적이 退하였다. 高句麗軍이 따라가서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니 城이 곧 歸服하였다. 安羅人守備兵이 新羅城을 쳐 뺏었다」는 것이다.

이 戰爭은 前條에 계속되는 것이므로 高句麗가 倭와 百濟의 聯合軍을 相對로 한 것이며, 또 高句麗가 任那加羅까지 친 것을 알 수 있다. 特히 注目할 것은 「任那」라는 文字가 보이는 것이다. 任那라는 말은 日本書紀에는 많이 보이나, 우리 나라 史籍이나 金石文에서는 三.四 곳에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日本書紀에서는 任那라는 말은 広義와 狹義의 두가지로 쓰여졌는 바, 広義로는 여러 加耶를 總括하여 썼으며, 狹義로는 지금의 金海 또는 高靈에 있던 南加耶 또는 大加耶를 뜻한 듯 하다. 任那問題에 對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論하겠다.

다)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不明字中略). 王幢要祿盪 .

倭寇潰敗. 斬殺無數.

十四年甲辰은 西紀404年인데, 「倭가 帶方界에 侵入하였으므로 王의 이끄는 군사가 이를 맞아쳐서 斬殺하기를 數없이 하여 倭寇가 潰敗하였다」는 것이다. 아마 왜는 前條의 400년에 敗退하였다가 그것을 輓回하기 위하여 海路로 西北海岸에 上陸하여 帶方故地인 지금의 黃海道地方에서 攻擊하여 온 듯 하다. 上揭 碑文의 不明字 中에 「連船」의 글자가 보이는 것은 倭가 海路로 上陸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 戰爭에서 「倭寇潰敗. 斬殺無數.」라고 한 것을 보면, 倭는 이때 크게 敗한 것이 分明하다.

라)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不明字九字略). □□合戰. 斬殺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還破沙溝城. 婁城. (不明字下略).

十七年丁未는 西紀407年인데, 이 句節에는 碑文의 重要한 部分에 缺損이 있어 高句麗가 싸운 相對를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다만 前條와의 文脈으로 보아 이 相對는 倭 또는 倭와 百濟의 連合軍이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倭는 前條의 404年의 敗戰을 挽回하기 위하여 3年의 準備를 한 뒤 이때에 大軍을 이끌고 쳐온 듯 하다. 「王이 步騎 五萬을 보내어 이를 맞아 싸워 거의 모조리 斬殺하고, 얻은 바 갑옷이 一萬餘벌이 되고, 軍資와 武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였으므로 아마 廣開土王의 征戰中 最大의 勝利가 아니었던 가 생각된다. 倭는 이 戰鬪에서의 慘敗로 因함인지 日本書紀에도 이 뒤 한 동안 韓半島에의 侵略의 記事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廣開土王陵碑에 있어서의 倭의 侵入에 관한 記事를 보아 온 바와 같이 後期の 세번의 戰鬪에 있어서는 高句麗의 勝利였으며, 특히 나중의 두번은 倭군의 慘敗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廣開土王陵碑의 記事가 日本이 古代에 南韓을 支配하였다는 證據가 될 수 없다. 日本의 南韓經營說

은 日本이 任那를 占領 支配하고, 任那를 拠点으로 하여 거의 200年동안 百濟 新羅까지도 支配 統治하였다는 主張이다. 이것은 主로 日本書紀의 記事에 依한 것인데, 日本書紀에 對한 充分한 文獻批判을 거치지 않고, 日本의 帝國主義的 思潮에 依하여 더욱 歪曲 誇張된 것이다. 다음에 이 任那問題를 檢討하여 보겠다.

2. 任那問題의 共同研究에 對하여

任那問題에 對하여는 北韓의 金錫亨이 다음과 같은 두 著書에서 자세히 論하였다.

金錫亨 「三韓三國의 日本列島內 分國에 對하여」 歷史科學

1963-1

村山正雄・都護雨 訳 「三韓三國の日本列島內 分國に ついて」

1964年11月

金錫亨 「初期朝日關係研究」 社會科學院出版社, 1966年

朝鮮史研究會訳 「古代朝日關係史」 勁草書房, 1969年

金錫亨은 위의 첫 著書에서 日本列島內에 三韓三國의 分國이 있었다고 하고, 日本書紀의 記事에서 倭가 侵略 支配하였다고 하는 新羅, 百濟, 加耶 등은 實은 日本列島內에 있는 新羅, 百濟, 加 등의 分國을 말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特히 日本書紀에서 倭가 占領 支配하였다고 하는 任那는 日本列島內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論文은 考證이 營성하고 論理의 飛躍이 많으므로 日本 學者들

로 부터 많은 批判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 著書를 다시 敷衍하고 缺點을 補完하여 後者의 「初期朝日關係研究」를 刊行하였다. 金錫亨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筆者는 前掲의 拙稿(三韓三國의 日本列島內分國에 對하여)에서 任那를 包含한 미야게(官家) 設置諸國을 朝鮮에가 아니라, 日本書紀의 文章을 미루어 보아 日本列島 西部에 求할 것이라는 見解를 提起하였다. 年代問題를 따로 考慮하면 日本書紀의 編纂者는 大和에 隸屬한 그 여러 나라가 朝鮮에 있었다고 하는 것, 즉 주로 그 位置에 關하여 錯誤를 犯하였다고 하겠다. ……筆者는 本書에서 이에 對하여 자세히 論하겠다.」

즉 金錫亨은 日本書紀에서 任那에 日本의 官家(미야게)를 두어 支配하였다는 그 任那는 日本列島 西部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任那란 말의 우리側 記錄으로서 가장 오랜 것은 前掲한 바 있는 廣開土王陵碑의 十年庚子條의 記事이다. 지금 그 任那의 位置를 밝히기 위하여 다시 그 句節을 들겠다.

十年庚子。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兵方至。倭賊退(不明字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即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下略)

즉 廣開土王이 「步騎五萬을 보내어 新羅를 救하였는데, 高句麗兵이 新羅城에 이르니 왜적이 退하였다. 이에 高句麗軍이 追擊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니 城이 곧 歸服하였다」고 하는데, 이 從拔城은 어느 城인지 比定할 수 없으나, 任那加羅는 지금의 高靈

에 있던 大加耶를 말한 것인지 金海에 있던 本加耶를 말한 것인지 分明치 않다. 그 아래 句節의 安羅는 阿羅(阿那) 加耶, 즉 지금의 威安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任那加羅는 慶尙道 地方에 있었던 것은 틀림 없다.

三國史記에는 7世紀頃の 文章家로 有名하였던 強首가 任那加羅人 이었다는 記錄이 있다. 즉 同書 列傳 強首條에

「強首 中原京沙梁人也 父昔諦奈麻(中略)及太宗大王即位 唐使者至 傳記書 其中有難說處 王召問之 在王前一見說釈 無疑滯 王驚喜 恨 相見之晚 問其姓名 對曰 臣本任那加良人 名字頭 王曰 見卿頭骨 可稱強首先生」

라고 하였다. 「任那加良人」의 「加良」은 「加羅」라는 말의 漢字異寫이다. 여기서도 任那가 어느 加羅를 뜻하는 것인지 分明치 않다. 그런데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眞鏡大師塔碑에 쓰여진 任那는 分明히 金海에 있던 加羅를 뜻하였다. 眞鏡大師塔碑는 慶尙南道 昌原 鳳林寺地에 있는데, 後梁 龍德四年(西紀924年)에 新羅 景明王의 命으로 세워진 것이다. 碑文에

「大師諱審希 俗姓新金氏 某前任那王族 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 遠視興武大王」

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新金氏」라는 것은 金海에 있던 金官加耶가 新羅에 投降한 뒤에 金海 金氏를 일컫는 姓氏이며, 「遠視興武大王」이라는 것은 金庚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任那王族」이라는 것은 分明히 金海地方에 있던 加耶王族이라는

말이다. 眞鏡大師가 金官加耶의 王族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碑文의 「任那」는 金官加耶인 것이 分明하다.

任那의 語義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說이 있다. 鮎貝房之進은 「任」字는 「님」(主·王의 뜻)이고, 那는 「야」(나라의 뜻)의 轉呼라고 하였다. 이것은 大体로 妥當한 見解라고 하겠는데, 조금 補充하면 「那」는 「耶」로 表記될 뿐 아니라, 「壤」 「廬」 「乃」 「川」로도 表記되어 「나」 「내」로 읽어 都邑 또는 나라 (國)의 뜻이다. 그러므로 「任那」는 「님나라」의 漢字表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아마 加耶前期에 있어서는 金海에 있던 加耶가 여러 加耶 중에서 第一 強力한 位置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加耶 聯盟體에 있어서 盟主의 位置에 있었기 때문에 「님나라」 즉 「任那」라고 불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後期에는 高靈에 있던 加耶가 強하여져서 大加耶로 일컬어짐에 따라, 이 때에는 이 大加耶를 「任那」라고 불렀던 듯 하다. 三國志 魏志 韓伝에는 弁辰 二十四國 중에 彌烏邪馬國이 있는데, 이것이 혹은 彌馬邪國의 誤寫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彌馬邪」의 「邪」는 「那」 또는 「耶」로 읽으므로 「彌馬邪」는 「미마나」의 漢字表記로 볼 수 있다. 「任那」는 日本書紀에서는 「미마나」로 읽는다. 이 彌烏邪馬國은 지금의 高靈에 比足하는 說이 있다. 하여튼 「任那」라는 것은 지금의 金海에 있던 本加耶를 말한 때가 있었으며, 後期에 高靈에 있던 加耶가 大加耶, 즉 盟主가 되었을 때에 任那라고 불렀을 것이다. 어느 경우나 任那가 우리

나라, 즉 慶尙道地方에 있었던 것이 分明하다.

八世紀에 編纂된 日本書紀에서는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任那라는 말을 廣義와 狹義의 두 가지로 使用되어 混亂이 있다. 例컨대 同書 欽明紀 二十三年條에

「新羅가 任那의 官家를 滅하였다」

라고 하고, 그 註에

「一書에 말하기를 二十一年에 任那가 滅亡하였다. 통틀어서는 任那라고 하고, 따르는 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婁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飡國, 稔禮國이라고 한다. 合하여 十國이다. 」

라고 하였다. 欽明天皇 23年은 西紀 562年이므로, 이때 滅亡된 任那라는 것은 高靈에 있던 大加耶이다. 그러나 日本書紀는 그 註에 있는 바와 같이 任那라는 말을 個別的인 여러 加羅에도 使用하였던 것이다.

日本書紀의 任那關係記事로서 제일 오래 것은 崇神紀 六五年과 垂仁紀 二年의 記事인데, 이것은 王名도 內容도 伝說的인 것이기 때문에 論할 것이 못된다. 다음의 記事는 神功紀 四九年의 것인데, 神功皇后의 在位나 人物은 역시 伝說的인 것이지만, 이 年代는 西紀 369年 (日本書紀의 紀年으로는 249年이나 二周甲 내린다) 으로서 이 記事는 大体로 百濟記등 百濟側記錄에 依한 것이므로 달리 考慮되어야 될 것이다. 이때의 百濟王은 近肖古王인 바, 이 王代에는 高興에 依한 書記라는 歷史가 편찬되었다고 하므로 이

무렵부터 大体로 歴史的記錄으로 볼 수 있다. 하여튼 神功紀 四十九年條의 記事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四十九年 春三月 荒田別，鹿我別을 將軍으로 삼고，久氐등과 함께 군사를 모아 바다를 건너 卓淳國에 이르러 新羅를 치라고 하였다. (中略) 곧 木羅斤資，沙次奴跪에 命하여 精兵을 이끌고 沙白蓋盧와 함께 가게 하였다. 모두 卓淳에 모여서 新羅를 쳐서 破하였다. 因하여 씨 比自狽，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의 七國을 平定하였다. 이어 군사를 옮겨 西쪽으로 돌아서 古奚津에 이르렀다. 南蠻 枕彌多禮를 무찌르고 씨 百濟에게 주었다. 이에 그 임금 肖古 및 王子 貴須도 또한 군사를 이끌고 來會하였다. 때에 比利，辟中，布彌支，半古의 四國도 자연히 降服하였다.」

위와 같은 것이 日本書紀에서 南韓을 征服하였다는 記事의 처음 시작이다. 그런데 이 記事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歴史的事實이 있느냐는 여러 面으로 檢討하여 보아야 될 것이다.

360年代의 三國은 高句麗는 故國原王，新羅는 奈句王，百濟는 近肖古王의 在位時代로서 三國이 다 國勢가 떨치던 때이며，三國의 關係가 緊張되었던 時代이다. 高句麗는 313-314년에 樂浪·帶方を 滅한 뒤에 積極的으로 南進政策을 썼으며，이에 對하여 國境을 接하게 된 百濟가 高句麗의 南下勢力을 막기에 死力을 다하였다. 新羅는 北의 高句麗와 同盟關係를 맺고，主로 西쪽의 加耶를 向하여 國勢를 擴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國際情勢에 있어서 百濟는

北으로 高句麗의 南下勢力을 막고, 東南으로 新羅의 蚕食으로부터 加耶를 빼앗아 自己의 領土를 넓히려는 政策을 썼는데,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日本의 武力을 빌려고 하였다.

上掲의 日本書紀 神功紀 四十九年の 記事는 그러한 百濟가 倭의 武力을 끌어 들여 新羅를 치려고 한 歷史的事實이 反映된 것이다. 그 記事의 將軍 중에 木羅斤資는 百濟의 將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神功紀 四六年條와 四七年條에 百濟가 倭군을 이끌어 들이기 위하여 使臣을 보내어 外交的인 活動을 한 것이 엿보인다. 勿論 이 記事에는 그러한 外交的 交涉이 直說的으로 表現된 것은 아니나, 그 說話的인 記事의 뒤에 그러한 歷史的事實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神功紀 四九年條의 記事에서 倭가 加羅 七國을 平定하였다는 것은 誇張된 것으로서 史實과 다르다. 왜냐하면 그 七國 중의 南加羅는 金海加耶인데, 金海 加耶는 오랫동안 獨立國으로 있다가 西紀 532 年에야 新羅에 併合되었고, 또 그 七國 中 加羅라는 것은 大加耶(지금의 高靈)인데, 이것도 562 年에 新羅에 征服되기까지 國勢가 떨쳐 있었기 때문이다. 또 比自^本은 「^本빛불」의 表記로서 三國史記에는 比自火, 또는 比斯伐, 三國遺事에는 非火, 眞興王 昌寧巡狩碑에는 比子伐의 漢字로 記寫되었으며, 지금의 昌寧에 있던 加耶이다. 昌寧碑는 561 年에 세워진 것이므로 比自^本도 이 무렵에 新羅에 併合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본 바와 같이 日本書紀 神功紀四十九年條에 倭가 新羅나

加耶七國을 平定하였다는 것은 우리 側의 確實한 記錄에 依하여 事實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既述한 바와 같이 이 時代의 前後에 百濟가 高句麗의 兩侵勢力을 막고, 新羅로부터 加羅의 領土를 뺏기 위하여 왜의 軍事力을 이끌어 들인 事實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神功紀는 이 뒤도 계속하여 任那關係記事를 실고 있으며, 応神紀以後도 斷統적으로 任那關係記事가 보이니, 雄略紀로부터 갑자기 많아지고, 歴史的 記錄으로서의 信憑性도 차츰 많아진다.

그런데 日本書紀는 雄略紀에서부터 任那에 國司, 日本府 또는 官家라는 名稱의 職 또는 機關을 두었다는 記事가 나타난다. 이러한 記事가 日本의 任那經營說의 根拠로 利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國司, 또는 日本府 등의 用語는 後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當時, 즉 5世紀頃에는 이러한 이름의 職이나 機關이 있던 일이 없다. 왜냐하면 日本의 國司라는 職制는 7世紀以後에 시작된 것이고, 日本이라는 國號도 7世紀 中葉 大化政新以後부터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雄略天皇代에 任那에 日本의 國司나 日本府니를 두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또 日本書紀의 任那關係記事를 通하여 보더라도 日本의 官吏나 將軍이 任那에 常駐한 事實을 찾아볼 수 없다. 왜군이 一時 任那에 駐屯한 일은 있었던 듯 하나, 대개 軍사는 必要한 때에 그때 그때 派遣한 記事도 보인다. 또 日本書紀에도 任那에는 罔연히 王이 있었던 것이 記錄되어 있으며, 이른바 日本府 같은 日本의 統治機關이 任那의 백성

을 直接 다스린 記事는 全혀 찾아볼 수 없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日本書紀와 廣開土王碑의 記事는 왜의 來侵事實은 否認할 수 없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日本의 南韓經營說의 根拠가 될 수는 없다. 왜의 軍事的 侵攻은 一時的인 것이었으며, 그것이 任那에 常駐的인 統治機關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對하여는 當時의 日本의 國勢와 新羅, 百濟, 加耶의 國勢 乃至 文化水準을 比較하여 그러한 南韓支配가 可能하였느냐를 考察하여야 될 것이다.

4世紀 乃至 5世紀 前半까지도 日本은 아직 統一國家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地域的인 政治勢力으로 나뉘어 있었다. 5世紀 後半부터 비로소 大和朝廷에 依한 統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地方勢力이 強하였던 것은 勿論이다. 그것은 527年 즉 6世紀에 있어서의 九州地方의 政治勢力이었던 盤井의 亂에서도 證明된다. 즉 이때 盤井이 大和國이 韓半島에의 出兵을 反對하여 九州地方에서 中央勢力에 反旗를 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約 一年後에 平定되었으나, 하여튼 大和朝廷에 依한 統一의 基盤이 아직 弱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日本의 國勢를 勘案하여 日本의 南韓支配라는 것은 어렵었을 것은 明若觀火의 일이다. 또 廣開土王陵碑의 記事에 보이는 4世紀末葉 乃至 5世紀 初葉의 倭라는 것은 아직 統一國家 以前의 九州地方의 政治勢力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의 韓半島의 政治情勢는 既述한 바와 같이 百濟가 高句麗의 南侵勢力을 막고, 加耶의 땅을 併呑하기 위하여

倭의 武力을 이끌어들었다. 広開土王陵碑와 日本書紀의 記事는 바로 4世紀後葉以後의 이와 같은 百濟를 中心한 國際關係를 反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倭의 侵攻은 百濟의 要請에 依한 것이며, 대개는 百濟와 倭의 聯合軍이었다. 日本書紀는 이러한 百濟를 主体로 한 日本의 半島에의 出征史實을 日本이 主体가 되어 南韓을 征服하였던 듯이 百濟側記錄을 再構成한 것이다. 그것은 八世紀初의 國家的興隆에 따라 日本書紀를 編纂할 때에 그들의 高揚된 國家意識에 依하여 日本의 國威가 南韓에까지 미쳤던 듯이 誇張한 것이다. 日本書紀의 記事는 日本이 西紀 369年부터 562년에 이르는 거의 200年동안 日本이 南韓을 支配하였던 듯이 誇張하였다. 이러한 記錄에 依拠하여 日本의 御用學者들은 近世의 韓國支配를 合理化하는데 利用하기 위하여 古代의 任那經營說을 強調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書紀의 記事와 같이 정말 日本이 200餘年동안이나 南韓을 支配하였다면 그 地域에 그들의 遺蹟이나 遺物이 多少라도 남아 있을 것인데, 오늘날까지 그러한 痕跡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그러한 說의 좋은 反証이 될 것이다. 더욱기 4世紀 後半에서 6世紀 後半은 高句麗·新羅·百濟의 三國의 文化는 興隆期에 있었던 것이며, 加耶도 이들 三國에 견줄만한 상당한 文化를 발달시켰던 것이 오늘날 考古學的 資料에 依해서도 證明되고 있다. 그러므로 紀元 4世紀乃至 5世紀頃에 倭, 主로 九州의 政治集團이 韓半島에 侵入하였던 것은 事實이며, 또 그들의 軍事力이 상당히 強하였던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高句麗와 新羅의

軍事力を 征服할 수 없었고, 百濟의 外交의 手腕에 끌려 加耶를 侵略하였으나, 그것은 一時的 軍事行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百濟記, 百濟新撰, 百濟本紀 등 百濟側 記錄에 의하여 日本書紀를 編纂할 때에 倭의 軍事行動이 百濟의 要請에 依해서가 아니라, 倭의 主体的 意圖下에 加耶를 征服한 것으로 歪曲하고, 占領地의 一部를 百濟에 賜與한 듯이 꾸며서 叙述하였다. 또 加耶의 占領이 一時的 軍事行動이었음에도 不拘하고, 거의 200餘年동안 日本이 任那에 官家 또는 日本府라는 統治機關을 두고 南韓을 支配하였던 듯이 誇張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北韓學者들과 같이 廣開土王陵碑文을 역지로 原文의 뜻에 어긋나게 읽어서 日本의 南韓經營說을 否認하려는 方法을 取할 必要가 없고, 또 北韓學者들과 같이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任那뿐 아니라 甚至於 百濟 新羅까지도 日本列島內에 있던 三國의 分國이라는 등의 不合理한 主張을 할 必要가 없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歷史學의 正道에 서서 廣開土王陵碑文을 檢討하고, 日本書紀의 南韓關係記事를 批判하여 上述한 바와 같이 그러한 記錄들이 決코 日本의 南韓征服統治를 證明하는 것이 아님을 主張하는 것이다. 또 當時의 加耶·百濟·新羅의 文化가 倭의 武力的 侵略은 받았을지언정 倭의 永統的인 統治支配는 許諾하지 않았을 것도 아울러 考慮하여야 될 것이다.

Ⅱ. 考古學의 共同調査

北韓은 解放後 行한 土木工事로 因하여 많은 遺蹟, 遺物들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대단히 重要的 발견이 包含되어 있고, 그러한 資料들은 南韓의 考古學의 研究에도 대단히 緊要한 資料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南北韓은 先史時代로부터 하나의 文化圈을 이루었기 때문에 北韓에서 발견된 遺蹟 遺物들은 곧 南韓의 先史文化의 研究에 直結된다.

그러나 現在의 南北韓의 政治的關係로 因하여 우리는 北韓의 考古學의 資料를 直接 入手할 수 없고, 日本에서의 번역 또는 紹介를 通하여 間接的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解放後 咸鏡北道 雄基屈浦里西浦項에서 舊石器時代의 遺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都宥浩, 朝鮮의 舊石器時代 文化인 屈浦文化에 관하여, 考古民俗 1964 - 4. 鄭漢德訳 朝鮮의 舊石器文化, 屈浦文化について, 考古學雜誌 50 卷 3 號 1964 年 參照) 이 遺蹟에서는 靑銅器文化層, 新石器文化層 아래에서 舊石器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發掘者인 都宥浩는 이것을 前期 舊石器의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나는 그것을 기껏하여 舊石器後期の 것으로 보는 것이다.

新石器時代의 遺蹟으로서는 黃海道 鳳山郡 智塔里 遺蹟, 平安南道 溫泉郡 弓山 遺蹟, 平安北道 寧邊郡 細竹里 遺蹟, 平安北道 醴川郡 新岩里 遺蹟, 咸鏡北道 鏡城郡 農圃洞 遺蹟 등이 중요한 것들이다.

智塔里 遺蹟에는 세 文化層이 있었다. 제일 아랫 층이 新石器

文化層인데, 이 층에서 幾何文土器와 함께 石器들이 出土되었다. 특히 한 土器속에서 피 또는 조라고 생각되는 穀粒이 발견되어 注目을 끌었다. 이 층의 幾何文土器는 器形과 文樣으로 보아 新石器時代末期의 것으로 推定되는데 穀粒의 出土로 이 時代에 農耕이 있었던 것이 證明되었다. 그러나 이 文化에는 이미 無文土器文化가 接觸되었던 것이 證明되므로 이러한 農耕文化는 新石器時代末에 無文土器文化로부터 傳播된 것으로 생각된다.

農圃洞 遺蹟은 解放前에 발견된 것이나, 解放後에 다시 발굴하여 많은 遺物이 발견되었다. 土器, 石器, 骨器類가 總 3,632 點의 많은 量이 出土되었다. 土器에 있어서는 모두 平底이고, 彩色土器도 包含되어 있는 點이 注目된다.

靑銅器時代의 遺蹟도 중요한 것이 많이 발견되었다. 黃海道松林市石灘里 遺蹟, 黃州郡沈村里 유적, 鳳山郡新興洞 유적, 平安南道中和郡眞坡里 유적, 江南郡猿岩里 遺蹟 등에서 無文土器初期의 이른바 팽이그릇土器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은 靑銅器時代初期의 典型的인 土器와 石器들이 발견되어 이 時代文化를 研究하는데 중요한 資料를 提供하였다.

解放後 北韓의 考古學的發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資料가 발견된 것은 靑銅器遺物들이었다. 靑銅器時代 初期의 것으로는 上記의 黃海道鳳山郡新興洞과 平安北道諺川郡新岩里的 유적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靑銅단추와 靑銅刀子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 平安北道義州郡美松里洞窟上層 유적, 咸鏡南道永興郡永興邑 유적이 있다.

이들 두 유적에서는 古式의 靑銅鎗가 注目된다.

1958年 平壤市貞柏里에서 工事中에 土拵基가 一基 발견되었는데 細形銅劍을 비롯한 銅器 鐵器등과 함께 「夫租歲君」이라는 文字가 새겨진 銀印이 발견된 것이 가장 注目된다. 「夫租」는 沃沮를 말하는 것으로 그 君長의 印章과 함께 銅器, 鐵器가 발견된 것이다. 「夫租歲君」은 漢四郡設置以前의 沃沮部族의 長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大体로 그 年代가 紀元前 2世紀頃이었을 것이 推定된다. 그러므로 이와 伴出된 銅器, 鐵器등의 年代를 알 수 있게 된 것이 큰 收穫이라 할 수 있겠다.

또 1961年에 같은 平壤市貞柏里에서 木槨墓가 발견되었는데, 細形銅劍등 銅器와 함께 「夫租長印」 및 「高常賢印」이라는 文字가 새겨진 두 개의 銀印이 出土되고, 더우기 「永始三年十二月春鄕作」이라는 銘이 있는 櫟竿이 伴出된 것은 큰 收穫이라고 하겠다. 「夫租長印」이라는 것은 樂浪郡夫租縣의 長의 印이며, 「永始三年」은 紀元前 14年이다. 그러므로 이 遺蹟의 上限이 紀元前 14年임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出土된 遺物들의 年代推定の 根拠를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遺蹟은 靑銅器時代의 編年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上記한 遺蹟 外에 北韓에서는 靑銅器時代의 重要한 遺蹟들이 많이 발견되어 靑銅器文化의 研究에 큰 進展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資料에 對한 解釋에 있어서는 우리와 많은 差異가 있으며, 編年 特히 上限年代등의 推定에 있어서 우리의 見解와 差異가 많다.

Ⅲ. 結 論

上述한 바와 같이 歴史學에 있어서 北韓과 南韓은 研究의 目的과 方法이 많이 다르다. 그들은 史的唯物論의 方法에 依하여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宣傳을 위한 方便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歴史學의 目的과 方法에 있어서는 南韓과 北韓의 學者 사이에 妥協點을 求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廣開土王陵碑와 任那問題는 日本의 帝國主義的 歪曲에 對하여 우리의 歷史를 바로잡는 문제이므로 南北韓의 目標가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廣開土王陵碑가 現在 中共의 領土인 滿洲에 있으므로 南韓의 學者로서는 實地 調査할 便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廣開土王陵碑의 研究는 南北韓이 共通된 夙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南北韓의 學者들이 共同調査하기를 提議하고자 하는 것이다.

任那問題에 있어서는 任那의 地理的 位置가 南韓에 있으며, 加耶諸國의 遺蹟과 遺物이 南韓에 있기 때문에 北韓學者들로서는 또한 研究에 不利한 條件에 있다. 그런데 任那問題에 있어서 南北韓學者 사이에 見解의 差異가 많이 있으나, 上述한 바와 같이 日本의 傳統的인 國家主義的 見解를 하루마써 修正할 責任이 우리들 韓國學者의 어깨에 놓여 있으므로 이 문제에 對하여도 南北韓의 學者들이 共同研究할 必要가 있다.

廣開土王陵碑의 問題는 最近 日本에서도 再檢討의 輿論이 일어나고

있으며, 一部 學者들 中에는 韓中日 學者에 依한 共同調査를 提議한 일도 있다. 또 任那問題에 있어서도 日本의 一部 學者는 日本의 過去의 軍國主義에 迎會한 研究에 對하여 反省의 態度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廣開土王陵碑나 任那問題는 무엇보다도 韓國 歷史의 問題이므로 韓國學者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解決할 責務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에 依한 對話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難關이 있을 것은 누구나 다 豫測하고 있으나 兩側의 꾸준한 努力에 依하여 南北統一에의 길이 摸索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政治的統一이 短時日內에 이루어지리라고는 바랄 수 없는 것이 事實이므로, 우리는 그러한 統一에의 努力으로서 우선 非政治的인 南北交流를 試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많은 國民이 믿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南北交流의 문제에 있어서 文化交流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쪽이며, 그 中에서도 우리의 專門인 歷史學과 考古學의 分野에 있어서의 南北交流의 問題를 考察하여 보았다. 歷史學과 考古學은 韓國民族과 文化의 起源形成을 究明하고, 우리 民族이 오랜 歷史에 있어서 共同運命體를 이루었음을 認識케 하는 것이다. 南北 統一에 있어서 우리 民族은 하나이라는 民族意識을 自覺케 하는 것이 統一에의 意慾을 북돋우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歷史學과 考古學에 있어서 南北韓이 共同調査 또는 共同研究 할 수 있는 問題를 考察하였다.

하루바때 南北交流의 길이 열리고, 南北學者들이 統一에의 民族的課
業에 一翼을 担当할 수 있기를 念願하는 바이다.

南北韓學術交流의 段階的實施方案

- 言語學 -

I. 序論 - 國語研究의 二개의 分野와

學術的인 國語研究分野의 學術交流實施方案 -

1945年8月15日 日帝로부터의 解放과 同時에 한 單一民族인 韓民族은 南北으로 兩斷되어 다른 政治體制를 指向하게 되었으니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다시 없는 民族的인 悲劇이었다. 더우기 이 兩斷이란 이데오로기의 差異를 基盤으로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疎通이 完全히 막혀 버리게 됐으므로 그 悲劇性은 한층 深刻한 것이 되었다. 한 겨레가 다만 둘로 갈라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 地球 위에 있으면서 全然 接觸과 疎通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워낙 한 나라를 이루어 오던 單一民族으로서 그 歷史와 言語를 한 가지로 하면서, 國際情勢의 犠牲으로 一時的으로 疎通이 막힌 것이기 때문에, 國語에 대한 研究에 있어서는 한가지의 對象을 研究하되 다만 아무런 相互間의 疎通과 情報의 交換없이 獨自的으로 研究하게 됐다는 樣相으로 나타났다. 28年이란 歲月 동안에 南北韓의 國語研究는 各己 相當한 業績들을 이룩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바라오던 바는, 可能하다면 한가지 일을 해나감에 힘을 둘로 가르지 않고 共同研究活動을 벌였으면

하는 것이었고 또 서로의 業績에 관한 情報를 交換하여 이 學問의 發展에 서로 도움되게 하였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8年 동안의 斷絶 끝에 이제 새로운 轉機가 보이기 시작하여 南北韓을 가로막던 굳은 障壁에 어느만큼의 疎通의 숨구멍이 트일듯 하고 그 疎通의 通路는 時日을 따라 넓어져 갈 展望이 보인다. 이같은 疎通이 學術交流로서 나타난다면 우선 그것이 國語研究 分野에서 實施될 可能性이 짙으리라고 내다보는 것은 한갓 希望的인 見解에 지나지는 않을 것이다. 南北韓 兩斷의 根柢는 이데오로기의 나뉠에 있다고 하겠는데 言語 文字의 研究部門에 있어서는 이데오로기의 問題가 介入될 餘地가 적은 것이니 南北韓 學術交流가 우선 쉽게 適用될 수 있는 學問分野가 國語研究의 分野일 것이기에이다. 뿐만 아니라 國語研究 分野가 南北韓 學術交流에서 우선으로 나루어져야 할 必然性으로 말하더라도 言語는 民族形成의 가장 基本的인 要素가 되며, 또한 言語는 文化成立의 基礎가 되는 것이기에 어느 學術分野의 交流에 앞서야 할 것이다.

南北韓 學術交流란 命題에 따른 國語研究分野에 있어서의 交流實施란 端的으로 말하여 이제까지 각기 갈무리서 보이려 하지 않던 쌓아 놓은 바 研究業績을 앞으로는 서로 터놓고 紹介 交換하여서 各己의 研究活動에 參考토록 하는 것임에 나뉠 없다. 그리고 그 交換은 豊富하고 具體的일수록 더욱 좋을 것이다.

學術交流에 臨할 姿勢는 말할 것도 없이 學究的인 것이어야 하겠다. 學問이란 客觀性있는 真理를 追求하는 것이니 真理 또는

眞理에 더한층 가까운 것이 學問的인 價値를 決定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이데오로기가 介入할 아무런 餘地가 없다. 万若 이같은 學問의 價値判斷에 이데오로기를 介入시켜 評價의 基準으로 援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似而非的인 學者임을 自處함으로써, 結局 스스로 競争에서 落伍되려는 意圖밖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陳腐한 듯한 이같은 말을 퍼는 것은 南北韓學術交流를 뜻하고 거기서 成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선 먼저 이같은 姿勢의 確立이 가장 요긴하게 要請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南北韓의 國語研究의 交流方案이란, 不自然, 不合理했던 이제까지의 斷絶을 깨뜨리고, 어디까지나 學究的인 眞摯性으로써, 共通의 研究目標인 國語의 研究를 더욱 効果 있게 發展시키기 위해서 서로 널리 情報를 交換하는 것 - 이밖에 더 나은 方案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나만 交流와 情報交換의 實務的인 方法을 어떻게 더 能率的이고 効果的으로 짚 것이냐가 문제거리가 되겠다. 다음에 그 方案을 간단히 提示해 보겠다.

1. 解放後의 兩斷 以後로 南北韓에서 이룩한 國語學에 관한 研究成果業績을 南北韓에서 各己 卞집없이 리스트로 作成한다. 이를 單行本, 論文, 非公開의 報告나 研究, 資料등의 發表形式으로 分類하고, 또한 研究分野別, 著者別, 論著名의 가나나順別등으로도 分類할 것이다. 이에선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刊의 “韓國論著解題 I. 言語文學篇, 1972年 發行”의 形式이 參考가 될 것이다.

2. 위의 論著目錄을 必要로 하는 研究機關, 各大学 및 一般凶書館 등에 備置할 수 있을만한 數量으로 서로 交換한다

3. 每年 敎回 定期的으로 論著目錄中에서 彼此 必要로 하는 論著文獻을 相互 交換 또는 購入할 수 있게 한다. 要請에 応할 數量의 文獻이 갖추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写真版, 複写, 경우에 따라서는 再刊行해 내어서 充當토록 한다.

4. 各凶書館藏書目錄, 出版年鑑, 出刊豫告등도 交換한다.

5. 国語研究機關, 国語学研究講座가 있는 大学, 其他個人으로서의 研究者등에 관한 詳細한 情報를 서로 提供한다.

6. 特히 言語學資料, 貴重文獻등의 影印複刊을 南北韓이 共同으로 出刊할 수도 있다. 南北韓共同出版社를 經營할 수도 있겠으나 南北韓에서 各自 出刊하되 購入豫約을 南北韓에서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現實的인 方策이 겠다.

7. 南北韓의 国語研究者들이 一定한 테마 아래 合席하여, 質疑, 討議, 意見交換, 研究動態의 報告등을 함이 바람직하나, 우선 첫 段階로서 이같은 相互交流를 위한 仲介的인 機關을 두어 그를 通하여 間接的으로 交流하는 方式부터 取해 볼 수도 있겠다.

8. 方言採集, 言語資料採集, 国語系統論研究, 言語工學的인 研究(鑷訳機械, 타이프라이터, 活字字母, 테레타이프, 電信記号등등) 등의 問題의 研究를 위해서 共同研究 또는 南北往來등의 可能性도 檢討해 본다.

9. 南北韓이 各己 상대 방의 國語研究의 業績, 動向 등을 研究, 整理, 檢討, 여느 研究者들의 利用을 위한 提供 등의 일을 맡아보는 研究機關을 두도록 할것. (高麗大 學校附設 匪細匪問題研究所가 遂行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일을 더 擴大한 것이겠다.)

以上 들어보인 方案은 모두 南北韓의 國語研究成果의 交流를 더 効果的으로 함을 目的으로 한 것들이다. 學術研究란 끝내는 研究者 各目的의 研究活動에 依存하는 것이므로, 以上の 方案은 研究者 各者의 研究에 參考할 資料를 提供하여 研究活動에 도움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國語의 研究에는 純粹學術的인 研究 以外에 規範을 制定함을 目標로 하고 따라서 規範樹立이 研究 價値의 判斷 基準이 되는 分野가 있음을 말해야 하겠다. 그것은 곧 言語政策의 인 分野이니 正書法制定, 外來語表記法 制定, 規範文法 編纂, 學術用語 查定, 國語註釈辭典 編纂, 標準語 查定, 漢子廢止 및 그에 따른 여러 問題들등이다. 이들은 그것이 一般大衆이 日常國語使用에서 依拠하는 規範이란 데서 그리고 國家의 威信으로 認定公布한 것이란 데서, 南北韓의 國語研究의 交流에서 避할 수 없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러하여 南北韓의 國語研究 部門의 學術交流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論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하나는 「學術的인」國語研究의 分野요, 다른 하나는 「實用的인」國語國字 使用에 있어서의 規範制定의 分野이다. 앞것의 學術交流方案은 앞에서 이미 簡略히 提示하였다. 그래서 本研究의 主目標는 뒷 分野의 學術交流方案의

摸索이 되겠다. 南北韓 國語研究 交流에서는 甞 分野가 主로 다
루어지게 될 것이니 그것은! 學術的인 國語研究는 學問의 自由에
따라 研究成果로서의 學說에는 必然的으로 差異가 있기 마련이지만,
規範이란 그 本質上 統一됨을 要求하니, 規範的인 國語研究分野의
學術交流라 하면 그것은 南北韓에 統一된 國語 規範化를 뜻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統一을 위한 合意를 얻기 위하여 交流
가 甞반침 되어야 할 것이며, 일거리도 많고 複雜할 것이기에이다.

具體的인 方案의 提示를 위해서는 甞먼저 北韓側에 관한 事情을
우선 알아야 될 것이나 우리는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하기 前에
먼저 北韓에 있어서 解放後 오늘날까지의 이 分野의 研究 過程
그리고 그 成果를 다음에 簡單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北韓에서의 國語規範化를 위한 研究와 成果

學問의 方向, 傾向, 重點을 두는 點들은 政治, 社會體制에 의해 크게 影響될 수 있다. 國語에 관한 研究에 있어, 北韓은 그 言語觀에 따라 國語의 規範化의 面的 研究에 특히 精力을 기울여 왔다. 이는 南韓에서 純粹 學術的인 面的 國語研究에 置重해 왔음과 對照的이다. 北韓에서는, 生産技術을 發展시키기 위해서, 民族 文化를 開花시키기 위해서, 社會 構成員사이의 連繫를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國어를 그에 맞게 나듬고 洗練시킴이 前提가 된다는 뜻에서 國어 規範化事業을 積極的으로 實施하였다.

北韓의 言語觀을 理解해야 北韓의 國語規範化의 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北韓의 言語觀을 엿보기 위해서 「조선어학, 1963년 3호, 에 실려 있는 「공화국 창건 15주년과 언어학자들의 과업」이란 論文의 약간을 여기 引用해 보아겠다.

해방후 새로운 社會를 建設함에 있어서 언어의 社會적 기능을 백방으로 높이며 언어의 인민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주 重要하게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대중이 알아 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며>>,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쓰며 말을 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으며, -조선말을 전체 人민의 所有로 만들 수 있었다.

조선어의 民主화를 위한 투쟁에서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人민들의 서사 생활에서 漢자를 폐지하고 國문에 의한 유일한 서사

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한자 폐지를 통하여 조선어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언문 일치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실현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광범한 인민들이 글을 쉽게 배우고 특히 서사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당과 정부는 언어의 규범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들을 불러 일으켰다.

1948년 10월 공화국 내각에서는 <<조선어 문법>>과 <<조선말 사전>>을 공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이 결정실현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어 문법>>을 내놓음으로써 언어의 규범화에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철자법, 표기법, 띄어쓰기, 구두법, 표준 발음법 등을 제정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언어 생활에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높아졌다. — 다음으로 당과 정부는 언어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일층 공고화하면서 이것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그것은 조선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제시한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할>>에 대한 과업 실천과 결부되었으며 이것은 오늘 인민적 문풍확립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당과 정부는 한 편으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 조선어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높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공산주의 교양과 언어에

절을 결합시킬 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였다.

바로 이렇게 공화국 정부에서는 그 창건 첫날부터 조선 노동당의 현명한 지도 밑에 우리 인민의 모국어인 조선어의 가일층의 발달을 위한 정확하고 현명한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따라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國語의 規範化란 國語에 대한 學術的인 研究成果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1947년에 이미 金日成綜合大學에 「朝鮮語文硏究會」를 結成하고, 漢字廢止, 맞춤법制定, 가로쓰기問題등을 硏究케 하였다. 1952년에 科學院의 創設과 함께 이 硏究會는 科學院 傘下의 「조선언어문학硏究所」로 넘겨갔고, 以後로는 科學院 언어문학硏究소를 中心으로 하고, 各大學의 조선어학(國語學) 講座를 맡고 있는 專門家들을 網羅하여 國語의 規範化와 關聯된 問題들을 理論的인 面으로 또는 實踐方法으로서의 面으로 硏究케 되었다.

이같은 國語規範化 事業을 벌이는데 있어 北韓의 政治, 社會體制가 알맞았던 것을 알아 둘 必要가 있으니, 大規模의 事業을 짧은 時日 안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全體主義的인 統制에 의해서 言語硏究家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주어진 課題를 集中的으로 그리고 共同協力으로써 硏究해나가게 할수 있는 體制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또한 南韓에서의 硏究者들이 個別的으로 그리고 自由로히 硏究에 專念할 수 있는 것과 對照的이다. 하여튼 北韓에서는 이같이 國語國字의 規範化를 위한 硏究에 集中的으로 注力하여 모든 言語硏究者들을 한 데 모아 督促 硏究케 한 結果 오늘에는 대단히 높은 成果를 거두

고, 目標達成에 一段落지은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 다음에 그 成果들을 部門別로 갈라서 그 研究한 課程과 이루어 놓은 成果들을 간단히 紹介코자 한다.

北韓에서의 國語研究를 이같은 方向으로 놓고 가고 研究者들을 한데 묶어 빠른 成果를 올릴 수 있었는데는, 말할 것도 없이, 공산당의 그들 特有的 批判과 채찍질등으로써 研究者들을 不斷히 조어나간 結果이겠다. 이런 事情을 장황히 說明하기보다 端的으로 「조선어문, 1958년 6호에 실린 「어문학 연구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단 論文의 一部分을 引用해 보이면 具體적으로 感得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인테리들의 낡은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인테리들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으로 자기를 무장하며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생활과 과학연구 사업의 지침으로 삼지 못했다. 만일 연구하였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부르조아 사상 잔재는 의연히 남아 있으며 부르조아 사상에 뿌리를 박고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머리를 추켜 들면서 새로운 것에 둔감하게 하였다.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함이 없이는 과학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혁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성과도 나올 수 없다.

우리 과학자들은 당 정책을 받들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할 대신에 과학의 <<상아탑>> 속에 들어 박혀서 과학의
<<특수성>>, <<신비성>>을 운운하면서 독선을 꿈꾸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문 넘어 현실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우기는 현실이 과학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랐다. —
연구 과제 설정에서 <<전공 과목>>을 운운하면서 자기 <<취미>>
에 맞게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문제를 연구하노라고 빙해 동안 아
무 것도 한일 없이 허송 세월한 사실은 얼마나 무책임한 현상이
며 무규률한 현상인가!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도 아무런
당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과학 조직 지도
사업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과학 사업에서 집체적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우리
당은 이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오래 전부터 이러한
현상을 경계하여 집체적 역량이 얼마나 유력한가에 대하여 한두번
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문학 연구 사업에서는 집체적 연
구가 경시되었다. 그것은 일부 연구 성원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가 집체적 토론을 꺼렸으며, 자기의 소위 <<견해>>를 <<신성화>>
하면서 진지한 과학적 토론의 기풍을 마비시켰다. — 과학 사업
에서는 안일성과 해이성을 극복하고 긴장된 전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은 현 시기에 긴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학 사업은 곧 전투나.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어문학자들은 연구 사업은 한가한 곳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르짖어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간일하고 해이한 사상 경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에서 도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넓고 진부하고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것들을 대담하게 털어 버리면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1) 맞춤법의 分野에서

國語의 規範化에서의 맞춤법 統一의 重要性은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北韓에서는 解放後 얼마 동안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년)」을 그대로 써 오다가 그 뒤로 국어 研究가 이뤄 놓은 成果와 知識등에 비추어 볼 때 여러가지 不備한 點이 있었으므로 이를 가다듬고 合理化하여서, 1954년 과학원에서 「조선어 철자법」으로 내어놓았다.

이 「철자법」과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比較해서 두두러지게 눈에 띄는 差異는 ! 「-르가, -르수록, -르지라도」등을 이같이만 적고 「-르까, -르쭈록, -르찌라도」등으로 적지않는 점, 漢字音의 表記에서 頭音「ㄹ」, 「ㄴ」을 그대로 表記하는 점, 前舌母音系列 다음에 오는 「-어」 「-었」을 「-여」 「-엇」으로 表記하기로 한 점, 사잇소리를 「·」符號로써 나타내기로 한 점 등이다.

이 「철자법」規定은 「조선어 철자법, 1954년, 과학원 출판사」에 실려 있고, 낱말의 單語들의 철자법은 「조선어 철자법 사전, 1956년, 과학원 출판사」, 「조선어, 소사전, 1956년, 과학원 출판사」, 「조선말 사전, 6권, 1960년 以後 과학원 출판사」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철자법」에 대한 解説로서 「장장명저, 조선어철자법해설, 교원용, 1958년, 교육도서출판사」를 볼 수 있다.

그뒤 1966년에 이「철자법」을 더욱 가다듬고 合理的이며 簡便하게 整理하여서 「조선말규범집, 공화국내각 직속국어사정위원회, P.64」를 내고, 이와 더불어 그때까지 써오던 前記 「조선어철자법」의 規定은 안 쓰기로 하였다.

여기서 「규범집」이란 名称은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등의 規範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란 뜻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띄어쓰기, 문장부호, 외래어표기법 등에 관한 規範들을 맞춤법 범주안에 넣었었지만, 「조선말규범집」에서는 正書法이란 범주의 下位범주로서 맞춤법, 띄어쓰기등을 定位시켰으므로 맞춤법이란 名称을 안 쓰고 「조선말 규범집」이라고 名称하게 된 것이다.

2) 標準發音法의 分野에서

국어 맞춤법은 形態主義原則에 立脚한 것이어니와, 形態主義的인 맞춤법에 있어서는 表記와 發音이 一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規範이 必須的으로

附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닭이」를 [나기]로 읽는지 [달기]로 읽는지, 「부엌안」을 [부어간]이라고 읽을지 [부어칸]이라고 읽을지, 「굳이」를 [구디]로 읽어야 되는지 [구지]로 읽어야 되는지, 또는 「이것은」을 [이거든]으로 發音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것을 許容할 것인지등에 關係서 確實한 規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런 「표준 발음법」에 관한 規定이 없어 사전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 표준 발음법은 또한 「의, 외, 위, 예」의 發音이라든가 ㅍ의 길이, 액센트, 語調등에 관한 發音法의 規範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北韓에서는 「조선어철자법, 1954년, 과학원」에서도 표준 발음법을 規定하고 있었으나, 그뒤 1966년의 「조선말규범집」에서는 한 章으로 따로 세워서 그 規範을 定하였다. 이 規範은 「조선어문법, 1960년, 과학원 출판사」 「현대조선어 (I), 1961년, 고등교육도서 출판사」등의 該當部分에서도 서술되어 있고, 낱말의 單語들의 發音法은 「조선말사전, 6권, 과학원출판사」의 올림말의 發音表示등에 明示되어 있다.

3) 外來語表記法의 分野에서

오늘날과 같이 外國과의 交流가 빈번해져 尙한 外來語가 들 여와 쓰이고, 外國의 地名, 人名등을 적을 必要가 자주 있게 되는 마당에서는 外來語表記法의 規範制定의 必要性은 아주 큰 것이다.

北韓에서는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前身)에서 1940년에 퍼

년 「외래어표기법 통일안」을 쓰다가 좀더 實踐性 있는 規範을 짓기 위해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研究케 하여 1956년에 「조선어외래어표기법」을 作成하였다. 그뒤 純全히 表音主義原則에 따라서 外来語를 表記하던 弊端을 고치고 될수록 外國語의 音韻과 우리말의 音韻을 對比하여 같은 音韻은 같은 字母로 적는 方向에서 外来語表記法을 作成키로 하여, 1958년에 前記 表記法을 修正補充하여서 露語篇, 英語篇, 獨語篇, 라틴語篇으로 構成된 「외래어표기법」을 發表하였다.

4) 辭典編纂의 分野에서

單語와 그 意味分野에서의 規範化 事業에서 커다란 意義를 가지는 것은 現代語註釈辭典이다. 學生이나 一般人이 單語의 意味를 찾고 決定하려 할 때 우선 찾게 되고 또 最後의 判定을 내림에 依拠하는 것이 註釈辭典이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1948년에 「조선말사전」을 發刊할 計劃을 내각결정이 採択하고, 「조선어문연구회」가 이 事業을 主管하여 맡게 됐다.

6.25 事變으로 이 事業이 中斷되었다가 그 後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사전 연구실이 이 事業을 이어서 맡아 1956년에 우선 「조선어 소사전」(語彙數 4万餘, P.709)을 發刊하고, 이어 1960년부터 「조선말사전」을 發刊하기 시작하여 1962년에 6卷까지 完成하였다. (語彙 約 17万, 總5,054 페이지)

이 辭典에 대한 간단한 評이 「現代朝鮮語辭典:菅野裕臣, 朝鮮學報 45 輯, 日本天理大內」에서 言及되어 있다.

1968년에 과학원언어학연구소에서 「현대조선말사전」(1,950 페이지

지, 語彙數 5 万餘)을 내었는데, 이 사전의 特色은 「語彙整理의 決定」에서 잘라버린 漢字語 外來語등은 실지 않고 現在 실제로 주로 쓰이고 있는 말을 골라 실었다는 것이니 國語純化의 뜻을 바탕으로 한 辭典이라 하겠다.

5) 規範文法 編纂의 分野에서

規範-理論文法, 그리고 學校文法 編纂은 教育에 있어서의 統一된 文法體系 教授의 必要性에서, 또 모든 國語 規範의 理論的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重畐한 意義를 가진다.

北韓에서는, 1949 年에 「조선어문연구회」의 名義로 「조선어문법」을 編纂하였고 1960 年에는 言語學者들의 集體的인 努力으로써 「조선어문법 1, : 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 과학원 출판사 刊行」이 發刊되었다. 이 「조선어문법 1」은 「어음론, 형태론」을 다루고 있고 480 페이지의 大著인데, 그 價值와 意義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評價된다. 이어 1963 年에 역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실에서 그 統編으로 「조선어문법 2, (문장론), P.311」을 發刊하였다.

이 밖에 「현대조선어(2); 형태론, 1962 年, 고등교육도서출판사」등이 있다. 이들 文法 樹立에 대한 理論的 뒷받침을 주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言語學理論雜誌 「조선어 연구」, 「조선어문」, 「조선어학」등에 發表되고 있다.

1963 年까지의 이들 言語學理論에 관한 研究論著目錄으로서 어느 程度 갖추어진 것을 「朝鮮語學史:小倉進平」의 補註:河野六郎에서

볼 수 있다.

6) 漢字廢止에 관해서

北韓에서는, 書寫生活을 大衆化하기 위해서는 漢字를 안 써야 된다는 뜻에서, 解放後 直時로 日常·書寫生活에서 漢字使用을 全面的으로 廢止하도록 하고 1949年에 이르러 全般的인 出版物에서 漢字使用을 完全히 廢止하였다. 그에 따른 措置로서 漢字로 쓰인 古典遺産에 대해서는 慎重을 期하여, 古典을 研究하기 위해서 專門家들로 하여금 더욱더 漢文을 研究하도록 保障하고 古典을 國어로 翻譯케 하여 古典의 大衆化를 꾀했다.

筆者의 눈에 띄인 漢文古典國訳書의 目錄을 다음에 적는데, 그중의 「박지원작품선집」의 通卷數가 27卷으로 되어 있으므로 朴氏 國訳書出刊은 相當한 卷數에 이르고 있음이 짐작된다.

- 고가요집, 조선고전문학선집 1, 1958년, P372.
- 고대전기설화집, P550, 1964年
- 가사전집, 1964年, P603.
- 력대시선집, 조선고전문학선집 5, 1963, P460
- 풍요선집, 1963年, P460.
- 리제현작품선집, 1960年, P310.
- 김시습작품선집, 1963年, P.428.
- 박지원작품선집 3, 조선고전문학선집 27, 1960年, P700.
- 력대격문(激文)선, 1963年, P300.

그런데 漢字를 廢止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文面에서 漢字를 없애버리면 된다는 單綽한 일같지만, 일단 이 事業의 안을 들여나 볼것 같으면 거의 끝이 안 보이게 많은 問題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北韓에서는 우선 漢字廢止와 더불어 당장에 處理해야 할 問題들 — 漢字語를 국어로 바꿔 말하는 問題(枝脈→가닥줄기, 碎石→부스러기들 따위), 日本式漢字語를 늘아내는 問題(仕上工→마무리공, 書留→등기 따위), 漢字成句를 안 쓰고 그에 대신할 국어의 成句로 대신하는 일(進退維谷→오도가도 못한다 따위)의 解決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問題만도 결코 작은 일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드라도 그같은 事業은 漢字廢止라는 큰 手術에 따른 應急的인 對症的인 것에 그치는 것이다. 問題는 必然的으로 國語의 規範化, 國語의 淨化, 그리고 그들의 이른바 「인민적 문풍 확립을 위한」 廣範한 運動으로 까지 展開되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곧 消極的인 對處라는 姿勢에서 積極的으로 國語를 洗鍊되고 아름답고 쉬운 言語로 發展시킨다는 더 높은 次元의 目標로 휘잡하여 廣範한 問題로 擴大시켰던 것이다.

또 이와 아울러서 따라 나오는 것이 學術技術用語의 制定問題이다. 그래서 다음에 學術技術用語査定과 이른바 문풍개혁운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7) 學術技術用語査定에 대하여

學術技術用語가 科學技術文化의 体系的인 發展과 깊은 關聯

을 가짐은 우리가 日常 빠져리게 느끼는 일이다.

北韓에서는 그 重要性에 비추어, 1949年 2월에 「학술용어사정위원회」를 組織하여 科學者, 技術者, 言語學者들을 網羅하고, 各專門分野別로 40餘個의 分科委員會를 組織하여 이들 部門別學術用語草案을 作成하여 広範한 審議와 檢討를 거쳐 그 統一案을 차례로 發表해 내고 있다.

朝鮮語學史：小倉進平의 補註：河野六郎에 1963年까지의 學術用語查定の 成果가 一部 發表되어 있으니 여기 옮겨 보인다.

○ 학술용어 (교육편) : 학술용어사정위원회, 과학원출판사, 1959年, 四六版, 98 페이지

○ 학술용어 (지질탐사편), 1959年, 116 페이지

○ 학술용어 (기술과학편), 1953年

○ 학술용어 (지리 및 수문편), 1959年, 100 페이지

○ 학술용어 (지명통일), 1959年, 220 페이지

○ 학술용어 (섬유과학편), 1959年, 250 페이지

또 다음과 같은 參考資料도 있다.

○ 술어 해설 <말과 글, 1961年11月号>

○ 농업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1月号>

○ 방직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2月号>

○ 수산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3月号>

○ 금속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5月号>

○ 기계제작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962年6月号>

○ 건설부문 술어 해설 <말과 글, 1962年9月号>

○ 술어해설 (농업관계) <말과 글, 1962年11月号>

이 學術用語査定에 있어서는 그 統一 規範制定에만 考慮를 늘린 것이 아니라 漢字語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漢字語의 大部分이 이들 學術用語가 차지하며, 또 學術技術用語의 大部分이 日本製漢字語란 점에서 이 問題가 漢字廢止, 國語純化와도 같이 關聯됨을 생각해서 이들을 될수록 固有語로써 또 쉬운 말로써 制定하기로 하고 여러 신문이나 雜誌, 「말과 글」誌 등에서 널리 學術用語의 새로운 案에 대한 大衆의 討議를 展開하여 査定에 反映 參考케 하고 있다.

「ハングル専用問題おぼえがき : 大村益夫, 早稲田大学 人文論集 7号, 1970年2月2日, P195」에 의하면, 漢字語의 學術語를 어떻게 固有語로써 바꾸느냐 하는 試案이 「노동신문」紙上에서만도 이미 二百數十회에 걸쳐 掲載되고 있다 한다.

또 「말과 글」에서의 이런 試函을 잠깐 들어 보이면 ;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말과 글>

- 교통 운수 부문 - 1959年5月号

- 교육 부문 - 1959年6月号

- 수산 부문 - 1959年7月号

- 음식 이류 - 1959年8月号

- 지질 부문 - 1959年9月号

- 체육 부문 - 1959年12月号

- 출판 부문 - 1960年11月号
- 문학, 음악부문 - 1960年12月号
- 기계부문 - 1960年3月号
- 금속부문 - 1960年4月号
- 광산부문 - 1960年6月号
- 화학부문 - 1960年8月号
- 경제부문 - 1960年9月号
- 건설수리부문 - 1960年10月号
- 주물부문 - 1961年1月号
- 물리부문 - 1962年3月号
- 수문부문 - 1962年5月号
- 기상천문부문 - 1961年6月号

특히 1961年11月25日에 내각 결정으로 학술용어사정위원회에 관한 規定이 採択되어 同 委員會가 強化되어서 더욱 精密하고 철저하게 作業을 進行시키기로 하였다.

8) 이른바 「문공 확립」에 대하여

우리가 北韓에서의 글을 읽으면, 無味乾燥하고 한결같으면서, 그 反面 論理的이고 명석하고 쉽게 理解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北韓의 글의 이같은 性格은 共產主義體制가 가져다 준 自然的인 歸結인가? 곧 28年間の 공산주의체제가 北韓의 글을 어느덧 이같은 性格의 것으로 만들어 내었는가? 이러한 推測은 틀린것은 아니겠지만 眞實의 一部分만을 가리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같이 독특하게 보이는 글체는 北韓에서 一定하게 세워진 理論과 計劃에 따라 그 方向으로의 상당한 努力的 結果 이뤄낸 人爲的인 結果인 것이다. 그들은 이같은 글체의 改革의 概念을 「문풍」이란 말로 부르고 있다.

國語의 規範化의 여러 일들-앞에서 살핀 正書法制定, 표준어制定, 학술用語查定 등등은 모두 이 문풍에 包含되는 - 그 보다도 문풍을 위한 前提的인 作業의 一部로서 理解되고 있다. 漢字廢止도 그 시초에 있어서의 理論이야 어떠했던 오늘에는 이 문풍이란 目標에 의 出發點으로서, 문풍 안에 發展的으로 解消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풍이란 단순히 言語淨化가 아닌 것이며, 그를 받치고 있는 바탕은 공산주의 理論에 따른 그들의 사회주의적 理論이다. 곧 한 마디로 말하여 국어의 使用을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이루려는 것이다.

이 문풍에 대해서는 많은 論議가 있으나 여기서는 「문풍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기 위하여 : 김수경, (조선어학, 1963년 3호)란 論文을 要約해 보임으로써 그 概念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論文에서는 문풍의 本質 그 基本內容을 살펴는데 있어 言語實踐에서의 立場, 觀點의 面에서 문풍을 넷으로 갈라서 說明하고 있다.

1. 언어 실천에서 당적이며 인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면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입장에서 문풍확립의 문제와 직접 관련해서 우선 강조해야 할 것은 '조선어는 조선 혁명수행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라고 인정하는 입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 언어는 인민대중에 대하여는 선전 교양의 수단으로 되며 원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투쟁의 도구로 된다' 하고 이같은 言語觀에 설
 때 '당연히 언어가 지니고 있는 두가지 커나란 기능 — 통신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 — 중 통신적 기능에 우위성을 인정하는 입장
 에 서게 된다. — 우리가 구체적 언어 사용에서 알기 쉬운 말,
 규범적인 언어로써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언어의 기본적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고 하였다.

또 言語에 대한 人間の 側으로부터의 積極的인 規範化 事業이 可
 能하며 또 必要하다 하여 '일찌기 부르쥬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는 언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언어에서의 모든 변화는 언
 어 그 자체의 자연적 발달의 결과이며 따라서 인간은 다만 이에
 순종할 뿐 어떠한 간섭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지배
 적이었다' 고 批判하면서 '이러한 견해들은 — 언어 발달과 사회의
 발달과를 분리시키는 입장으로서 결국 언어 규범화의 가능성과 필
 요성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고하여 拒否하고 '우리는 조선어의 문
 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며 우리말을 조선 혁명 수행에 보다
 더 잘 복무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
 強調하였다. 이어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 우선
 客觀的인 觀點을 가져야 한다. — 이 문제는 일견 언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분제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말과 글에서 정확
 성, 명료성등을 요구할 때 그것은 바로 사상에서의 정확성, 명료성
 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 오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주장하고

우리 혁명의 립장에서 客觀的 현실을 고찰할 때에만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고찰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정확 명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혁명이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며 인민대중을 떠나서 우리의 어떠한 사업도 있을 수 없는만큼 어떠한 말, 어떠한 글이라도 항상 인민 대중이 원하며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군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은 구체적으로 언어 위에서는 말과 글의 평이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데서 나타난다. 즉 전달하려는 사상 내용을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표현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2. 혁명 수행에 절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측면

"문웅 확립을 위하여는 — 말과 글의 내용에서도 당성, 계급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 된다. — <대중이 알아 들을 말> <대중이 원하는 글>이란 단순히 평이한 말이나 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알고 싶어 하며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들을 해설하고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러한 말과 글을 의미한다"하고 이어 말과 글의 內容에서 眞實性과 革命的情勢로써 안받침 되어 있어야 한다. 하고, 眞實性은 "첫째로 사상 감정의 표현의 率直性에 의하여 보장되며 둘째로 사실과의 부합, 그리고 논리의 부합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革命的情熱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의 정신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혁명적 정열이란

우리 시대의 모든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 위대한 것에 대하여는 정열을 담고서 격조 높게 서술하여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는 치솟는 격분과 야유로써 그려내는 투쟁정신을 의미한다" 하였다.

3. 언어 행위를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適応시키는 측면

문중 화립에서 언어행위를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적응시키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언어 행위는 결코 모든 경우에 천편일률적으로 피여서는 안된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 —언어는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교제의 수단으로 리용되는만큼 그 교제의 분야, 교제의 조건, 교제의 목적, 진술의 내용, 대상의 특성등등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그에 적당한 언어수단들을 선택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4. 언어 수단의 규범성과 표현성을 보장하는 측면

'언어가 가지는 통신적 기능의 관점, 민족어의 통일성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말과 글이 무엇보다도 먼저 규범화된 언어로 되어야 할 것은 무루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규범화된 언어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호상 이해와 호상 교제는 곤란하게 될 것이다.

단어 사용, 문법, 철자법 그리고 발음상에서의 의무적 규칙의 체계의 존재 —이것이 전 민족적 언어 규범의 본질을 이루며 구체적으로는 표준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우리의 말과 글에서 어휘, 문법, 철자, 발음등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어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문풍확립에서 초보적이며 필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행위는 비단 규범에 맞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표현적으로 되어야 한다. 말과 글이 문법 규칙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뚜렷하지 못하고 생동하지 못 할 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할 수 있다. — 이리하여 우리의 말과 글은 그 표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등의 특질을 갖추어야 한다.

以上에서 문풍의 基本內容을 理解하기 위하여 네가지 側面으로의 考察을 引用하였거니와 이 여러 측면을 綜合하여 문풍을 定義하되 “당적이며 인민적인 립장에 서서 혁명 수행에 절실한 내용을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알맞게 규범적이고도 표현적인 언어수단들로 전달하는 작풍”이라고 말하였다.

이른바 문풍에 대한 確實한 理解 없이는 北韓의 國語 規範化의 問題를 올바르게 認識할 수 없으며 따라서 南北韓의 國語研究의 交流의 方案을 세우는데도 缺陷됨이 있을 것이라 여겨 숨긴 引用을 끌어 보였다. 장황한 論議를 펴고 있지만 거기에서 공산주의적인 立場을 除去해 내면 結局 國語의 純化, 國語의 規範化, 國語의 大衆化에 나름 없다. 이같은 事業이 學者들의 研究範圍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一般大衆의 實際 言語活動에서 實踐됨으로써 成就되는 것이므로, 문풍이란 이러한 事業의 發展形態에 나름 없는 것이다.

Ⅲ. 規範的인 國語研究分野의 學術交流实施方案

I의 序論에서 提示한 바 學術的인 國語研究分野의 南北韓學術交流의 意義는 南北韓의 國語學者들이 學術研究活動에 있어 參考하려 해도 할수 없었던 相對方의 業績과 情報를 널리 利用 參考할 수 있게 함으로써 國語研究의 發展에 도움되게 하려는데 있었다. 그런데 規範的인 國語研究의 南北韓學術交流의 意義는 南北韓의 國語 國字에 關聯된 諸般 規範을 調節하여 한 言語를 쓰며 한 겨레로 된 南北韓에 統一된 하나의 規範을 樹立하려는데 있다.

두가지의 規範을 하나로 統一하려면 둘을 比較檢討하여 그중에서 보다 나은 쪽의 하나를 取択하여 그로써 統一規範으로 삼거나 또는 둘의 成果를 더진으로 해서 그보다 더 나은 새 規範을 만들어 내거나의 두가지 手段이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은 統一은 勿論 雙方의 專門家들의 討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는데, 그 實施方法에 있어서 彼此 아무런 準備와 方案도 없이, 貴重한 會席의 자리에 臨해서야 비로소 問題를 提起하고 研究 討議를 시작해서는 안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卽 南北韓의 國語學者들의 會合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것은 研究와 討議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統一된 規範을 樹立키 위해서 雙方의 研究해 온 바를 報告하고 調節하는 機會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規範的인 國語研究分野의 南北韓學術交流의 實施方法도 學術的인 國語研究에 있어서의 그것과 根本的으로 다를 것은

없다. 卽 南北韓兩方の 研究成果와 그에 관한 情報를 交換하고 그것을 各己의 研究에 參考利用하는 것이다. 다만 目標하는 바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差異가 있으니 學術的인 研究의 경우에는 研究者의 研究活動에서 參考로서 끝난 것이지만, 規範的인 研究의 경우는 充分한 研究 檢討 끝에 到達한 統一을 위한 國語規範化의 草案을 서로 調節하여 南北韓統一國語規範을 樹立하는 作業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學術的인 研究의 경우는 研究者 各自의 单独的인 研究活動의 形態를 取하나 規範的인 研究에서의 活動 形態는 여러 專門家들의 共同集体的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事業을 벌임에는 그 成遂의 可能性을 미리 檢討해 봐야 되는 것이니, 우리는 南北韓에서의 統一的인 國語의 規範 樹立이 根本的으로 可能性이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잠간 檢討해 봐야 하겠다. 「南北韓사이의 統一作業」에는 이데오로기面的 그것과 같이 도저히 實現이 不可能한 것도 있고, 政治的인 그것처럼 몹시 힘든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結論부터 미리 말하건데 本質的으로 可能할 뿐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學問의 價值評価는 學問的인 真理如何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어니와 國語 使用에 따른 여러 規範들은, 비록 規範이기는 하되, 學問的인 真理에 依拠해서 成立되는 것이므로 學問的인 價值規準에 따라서 로의 案을 取択하여 統一案을 세울 수 있을 것이기에이다. 다만 問題될 것이 있다면 學問的인 價值評価 規準 以外の 要素 —

이 데 오르기라든가 体面이라든가 政治的인 考慮라든가 스스로의 說에 대한 主觀的인 高집이라든가 一 를 統一案 作成의 作業過程에 介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과 双方의 參加者가 学問的인 真理를 바로 識別할 수 있을만한 学問의 識見을 갖추어 있을 것과의 두가지뿐이다. 豈컨데 이 일에 臨할 双方의 學者의 学識과 態度만 바람직한 것이라면 南北韓에 統一된 國語規範化의 樹立이란 일에는 難關이란 없다고 본다.

以上 緒論을 마치고 本論으로 들어가서 南北韓의 學術交流에 따른 國語에 관한 各規範들의 南北統一案을 樹立해 내는 일에 관한 段階的인 實施方案을 다음에 提示해 보이겠다.

1. 이 事業의 推進을 위해서 우리 政府는 다음과 같은 研究機關을 設置한다.

- 1) 南北韓의 統一正書法制定을 맡는 研究機關
- 2) 統一外來語表記法制定을 맡는 研究機關
- 3) 統一規範文法編纂을 맡는 研究機關
- 4) 統一學術技術用語查定을 맡는 研究機關
- 5) 統一標準語制定을 맡는 研究機關
- 6) 漢字廢止問題를 다루는 研究機關

그리고 이들 研究機關을 統括하는 上位機關을 아울러 設置한다.

또 위와 같은 各研究機關의 設置에 있어서 이미 設立되어 있는 該當研究機關이 있으면 그로써 代行시켜도 좋다.

2. 各研究機關에는 專任研究員을 1~2名씩 두어 事業의 遂行을 主맡게 한다. 이들 專任研究員은 北韓에서의 國語規範들을 充分히 研究 檢討하고 韓國의 그것과 比較檢討하여 南北韓에 統一된 規範을 위한 草案을 作成한다. 그 作業에 있어 統一案이란 南北韓의 調節合意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둘 것이다.

3. 一定한 時期에 南北韓의 關係國語學者들이 直接 合席 또는 仲介的인 方法을 통해서 「統一을 위한 國語規範化案」을 내놓고 合意에 到達하도록 調節檢討할 것이다. 1次의 接觸만으로써는 充分한 合意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數次 接觸이 必要하겠는데, 그 中間期間에 合意를 위한 充分한 修正을 行할 것이다.

이 接觸에는 前記 專任研究員이 主로 臨할 것이다.

4. 交流는 物的交流(文獻資料들)와 人的交流(學者들)와로 나누어 봄이 좋은데, 文獻資料의 交流時期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文獻資料의 利用은 現在도 制限된 專門研究者에게는 어느만큼 許容되어 있지만 南北韓의 公式的인 學術交流에 따른 文獻資料의 交流란 그 文獻資料入手의 길과 利用者의 範圍를 더욱 擴大된 것으로 하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人的交流는 얻어진 文獻資料에 依拠해서 統一國語規範化草案이 이루어진 다음에 實施함이 좋을 것인데 그 理由는 앞에서 言及하였다.

5. 國語規範化의 統一案 樹立 作業의 實施 차례는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서 序列的으로 行함이 좋을 것이다.

- (1) 正書法, 外來語表記法制定規範文法編纂
- (2) 學術技術用語制定 標準語制定, 註釈 辭典編纂
- (3) 漢字廢止와 國語純化등

(1)은 가장 形式的인 것이며, 또 研究가 그중 쉬운 것이며 셋 規範들은 서로 密接히 關聯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는 語彙에 관한 規範들인바 일거리가 방대할 뿐 아니라 이데 오로기의인 立場이 어느만큼 介入될 수 있기에이다.

(3)의 漢字廢止는 北韓에서는 「문공」으로 까지 擴大시키고 있으나, 國語純化로 범위를 줄여 잡드라도 여간한 일거리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므로 南北韓의 交流가 어지간히 긴밀하지 않고서는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며, 또 北韓은 이미 漢字廢止를 하고 있으나 南韓에서는 漢字를 아울러 쓰고 있다는 다른 情況에 있으므로, 이 問題를 南北韓學術交流에서 다루드라도 제일 마지막 順序로 돌려져야 될 것이다.

6. 以上과 같은 大綱 아래 다음에 國語規範들을 하나씩 범주별로 들어 좀더 具體的인 方案을 말해 보겠다.

i) 正書法 — 여기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文章符號法, 標準發音法이 包含되고, 從來 범벽으로 함께 다루어 오던 標準語, 外來語表記에 관한 規範들은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正書法規範은 南韓에서는 1933年에 「조선어학회, 철자위원회」에서 制定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3次에 걸친 약간의 部分的인 修正을 더한 것을 오늘날에 쓰고 있다. 北韓에서의 「조선말규범집」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4年, 1966年 두 차례의 根本的인 改修를 거친 結果이어서 더한층 合理的이며 進歩된 것임은 認定해야 한다. 따라서 統一案을 마련한다면 「규범집」의 것이 더 많이 採択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南韓에서는 이를 克服할 研究活動을 強力히 推進해야 할 것이다.

ii) 外來語表記法

外來語表記法에 대해서는 南韓에서 近間에도 數次的 論議가 있었던 터이므로 이 機會에 北韓의 그것도 參照하면서 더욱 發展된 統一을 위한 外來語表記法 作成의 研究를 서두를 것이다. 外來語表記法이 書寫의 경우에만 適用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放送 등에서 外國語가 마구 쓰이고 있는 듯한 感을 주는데 主体性 있는 表記規準과 널리 口말에도 適用되는 規範일 것이 斐請된다.

iii) 規范文法編纂

南韓에서는 일찍부터 여러차례 學校文法의 統一을 위해 여러 論議와 試圖가 있었음을 記憶하고 있으나 枝葉的인 問題로 日可日否하다가 所期의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理論書로서의 規范文法書로는 1929年에 나온 「우리말본:최현배」가 唯一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지녀와지는 形편이다. 그러나 各文法범주별로의 研究에는 상당히 높은 水準의 成果를 올리고 있으니 말하자면 한 실에

폐놓지는 못했으나 구술 낱말로로는 잘 같고 나뉘어진 것이 많이 있는 것이다. 文法全体로서의 体系와 아직 研究가 미흡한 문법범 주들을 集中的으로 研究하며, 한편 北韓의 成果들과도 充分히 对照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水準의 文法書를 내어 놓도록 國語學者들은 精力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規範文法の 統一은 맞춤법이나 辭典등의 統一의 前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v) 學術技術用語 — 南韓에서도 이미 學術技術用語查定에 상당한 業績을 이루고 있으나 實際에는 아직도 國語, 日語, 英語 등이 범벅이 되어 쓰이며, 學術用語查定委員會에서 查定한 用語가 實際로 쓰이지 않고 한갓 말놀이에 떨어져 있는 感이 없지 않다. 이 機會를 이 事業의 活動에 活氣와 刺戟을 주는 계기로 삼을 것을 바라고 싶다. 뿐만 아니라 될 수만 있다면 南北韓이 統一된 用語를 쓰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의 學術交流를 위한 基礎的인 作業이란 좁은 범위로 줄이더라도 매우 바래어지는 일이다. 統一學術用語查定の 研究機關에서는 北韓의 成果를 充分히 參考하면서 統一草案을 作成토록 힘쓸 것이다.

한편 從來의 주먹구구식의 用語制定의 姿勢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用語制定에 따른 學術的인 理論의 研究를 深化할 것이 要請된다.

v) 標準語

南韓에서는 오늘날 1936년에 發表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依拠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約 40年이나 前의 것이어서 여러 모로 根本的인 改訂이 必要하다는 것이 자주 말해

지면서도 그 機會를 못 얻고 있는 형편이다. 이 機會에 北韓의 標準語制定과 对照하면서 完備된 참다운 標準語의 樹立을 規定해야 할 것이다. 北韓에서는 國語 規範化에 있어서 南韓과 떨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함을 前提해 와서 國語의 여러 規範들이 南韓의 그것과 別般 나르지 않으며 標準語도 서울말을 根柢로 하고 있어 統一標準語制定의 일을 쉽게 하고 있다.

標準語에 관한 學術的인 研究도 깊이 할 것이 要請된다.

vi) 註釈辭典 — 南韓에서는 이미 여러가지의 善한 辭典들이 나와 있으나 量的인 發展일 뿐 質的인 發展을 이루지 못한 아쉬운 感이 있다. 國語教育, 國語規範化를 위해서 더욱 信賴되고 發展된 註釈辭典의 編纂에의 要請은 切實하다. 規範的이고 그러면서도 質的으로 水準 높은 辭典編纂을 위해서는 辭典編纂에 대한 더 깊은 理論的인 研究도 要請되고 있다.

南北韓에 通用되는 統一된 辭典의 編纂이란 어렵지만 우리가 더 나은 辭典을 만들기 위하여 北韓의 辭典編纂의 成果를 「賢明하게」 參考利用하는 것은 南北韓의 國語의 差異를 줄이는 데도 도움 될 것이다.

vii) 漢字廢止와 國語純化 — 漢字廢止는 일찍부터 善하게들 論議되면서 쉽사리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이 問題가 매우 방대한 일거리를 안고 있는 大事業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漢字廢止 主張에서의 根本的인 착오는 漢字의 不使用 即 文面에서 漢字를 없애 버림으로써 일은 나 이뤄졌다고 하는 安易하고 그릇된 見解를 主

張하는 것이다. 그 結果는 國語를 타락시킬뿐 아니라, 社會의 言語文字生活과 教育全般에 큰 混亂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 事業은 대단히 큰 일거리를 안은 것이어서, 學者들의 깊고 넓은 理論的인 研究와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없이는 成功이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다. 漢字廢止實施以前에 우선 充分한 터전을 마련할 慎重性이 必要하다. 漢字語를 固有語로 바꾸는 일, 새로운 말을 지어 내기 위해서 造語法의 研究, 方言이나 옛말에서도 목숨을 되살리는 말은 들어 오는 일, 外來語의 導入의 범위, 學術技術用語의 問題, 漢文的인 文体에서 순수한 국어를 터전으로 한 文体에로의 길 바꿈, 許容한 漢字語의 범위, 그에 따른 國語純化를 目標로 한 辭典의 編纂等등의 일거리를 處理함에 北韓에서 이룬 成果를 充分히 參考함은 賢明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北韓에서는 지나친 理想에로까지 끌어 올리고 共產主義的인 理想까지 導入하려는 文風의 傾向은 排除토록 함이 必要할 것이다.

IV. 交流方案에 따른 實踐의 한 具體的인 例示 - 統一맞춤법規範集 作成의 경우

우리는 이제까지 상당한 紙面을 들여서 南北韓의 學術交流에 따른 國語研究部門의 交流方案을 생각해 봤다. 이 方案이 實踐的으로는 어떻게 展開되는가의 한 본보기로서 正書法 가운데서의 맞춤법에 관해서 다음에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南韓에서의 맞춤법規範은 「한글맞춤법통일안」에 실려 있다. (※ 以下 「한글맞춤법통일안」을 「통일안」이라 略稱함). 이 통일안은 1933年 조선어학회에 의하여 發表된 것으로 그 當時의 國語研究 成果가 總決算된 빛나는 金字塔이었다. 그뒤 1937年, 1940年, 1946年, 1957년에 部分的인 修正 增補가 더해져서 오늘날 쓰고 있는 맞춤법이 되었다.

北韓에서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본바탕으로 삼아 이를 全面的으로 改訂하여 1954年 과학원에서 「조선어 철자법」으로 發表하였고, 다시 1966년에 이에 또다시 全面的인 改訂을 더하여北韓의 내각직속국어사정위원회의 名義로 「조선어 규범집」으로 내어 놓았는데, 이것이 오늘날北韓의 正書法으로 依拠되어 있는 맞춤법이다. (※ 以下北韓의 조선말 규범집의 맞춤법을 규범집으로 略稱함)

그런데 이 두 맞춤법 規範에서의 差異란 거의 無視해도 될만한 것이다.北韓의 맞춤법에서는 「-르가, -으수룩, -르지라도」로

적음에 대하여 통일안에서는 「-르까, -르쭈룩, -르찌라도」로 적고, 前母音系列 다음에 오는 「-어」·「-엿-」을 「규범집」에서는 「-여」 「-엿-」으로 적으며, 北韓에서는 漢字音 表記에서 頭音의 「ㄹ」 「ㄴ」을 그대로 表記하는 것 程度의 差異가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이 두 맞춤법에 따라서 써놓은 글을 살펴봐도 위에서와 같은 差異들 以外는 따로 差異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 사잇소리를 ·로써 적던 規定은 規범집에서 削除되었다.)

이러한 事構은 좀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겠이니 두 맞춤법이 본래 한가지의 言語 韓國語를 對象으로 한 것이며, 「조선말 規범집」이나 그 뒤의 「조선말 規범집」이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그대로 採擇하여 있고, 北韓에서의 國語規範化에서의 基本的인 姿勢가 앞날의 祖國統一을 考慮하여 南北韓 사이에 差異가 없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南北韓의 맞춤법을 統一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結局 위에서 들어 보인 몇가지의 差異點을 調節하여 統一된 合意를 보자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南北韓의 맞춤법의 差異란 뭇인가를 다음에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맞춤법이란 맞춤법에 관한 規範들을 한데 모아서 利用에 供키 위한 指針書이다. 곧 맞춤법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법의 規範을 한데 모아 들고 알게 해주는 구실을 하는 책인 것이다. 이런 뜻에서 여기서 말하는 맞춤법이란 좀더 正確히 말해서

맞춤법 규범집이라 함이 좋다. 이리하여 맞춤법의 規範들을 어떻게 提供하고 있는나의 그 提供方式의 差異가 곧 「통일안」과 「규범집」의 差異를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런 差異란 比喩컨데, 같은 事實을 報告文으로 쓰되 甲은 두서 없이 알아듣기 어렵게 얘기하고 乙는 條理 있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다면 둘의 報告에는 差異가 있는 그런 差異이다. 또 다른 비유로, 같은 음식을 만들되 A는 맛 있고 먹기 좋게 料理했는데 B는 간도 못 맞추고 料理 솜씨가 서툴러서 못 먹겠끔 해 놓았으면 두 음식에는 差異가 있다. 이같은 差異가 통일안과 규범집의 差異인 것이다.

이같은 差異를 우리는 흔히 작게 보아 넘긴다. 報告의 內容을 알아들었으면 됐지 報告文이 잘 되고 못 되고는 本質的인 것이 아니지 않는가? 목구멍을 넘어가서 배를 채우면 되었지 料理솜씨가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러나 이런 생각을 延長하면, 길은 사람이나 車가 어떻게 다니면 됐지 아스팔트를 깔았든 개굴창으로 빠지는 것이든 별 다를게 없지 않느냐, 지붕을 이었으면 고만이지 비가 섰들 어떻다는 것이냐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두개의 맞춤법 規範集이 맞춤법 規範들을 어떻게 提供하고 있는가를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가진 것이라 보고, 다음 그러한 差異를 두 맞춤법 規範集 사이에서 分析해 보겠다.

통일안은 그것이 다루어야 할 所管範圍를 잘못 잡고 있다. 따라서 맞춤법의 概念에 混亂을 주고 結局은 全體의 体裁에 두서가 없다. 즉 통일안에서는 外來語表記, 띄어쓰기를 맞춤법에 한테 넣

고 있는데 맞춤법이란 正書法의 一部이므로 外來語는 당연히 除外해야 할 것이오 띄어쓰기는 맞춤법 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正書法의 하위범주로서 文章符號法과 아울러 맞춤법과 같은 레벨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안에는 비록 附錄으로서이지만 標準語까지 한 項目을 주고 있는데 標準語規定까지 正書法이 말아야 할 까닭이 없다. 한편 표준발음법은 形態主義 맞춤법인 한글맞춤법에 있어서는 빼서는 안될 規範項目이다. 이 規範은 正書法과 따로히 세워도 좋으나, 이것만을 위해서 單 部門을 맡기기보담은 正書法의 下位범주도 包含시킴이 온당한 處事이겠다.

以上과 같은 論述에서 「규범집」이 正書法으로서의 범주아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법, 표준발음법이란 하위범주로 가름으로써 体裁를 整然하게 하고 理解와 學習을 훨씬 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맞춤법의 範圍의 바른 把握에 따라 통일안의 總論에서의 二(標準語에 관한 規定), 三(띄어쓰기에 관한 規定)을 削除하여, 규범집의 맞춤법의 총칙은 이러하다.

1.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2. 조선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맞춤법은 要컨대 국어의 形態音素論에 관한 規定이다. 形態素가 모여서 單語를 이룰 경우의 形態的인 變動의 異種들에서 그 중 한가지 形態를 가려잡아 그 形態를 固定해서 적는 것이 맞춤

법 規範들에 바탕되어 있는 原則이다. 形態素가 모여서 이룬 單語에는 세 類型이 있으니 單一 形態素로 된 單純語와 語幹의 結合인 合成語와 語幹과 派生接尾辭의 結合인 複合語와 그리고 語幹과 屈曲의 接尾辭와의 結合인 屈曲語와이다. 이 밖에 국어의 單語에는 特殊한 경우로서 漢字語가 있다. 이같은 單語를 이루는 形態素의 形態音素論的인 變動에 관한 規定이 맞춤법이라면 맞춤법의 規範들을 그같은 單語構成上의 類型에 따라 分類하여 두는 것이 合理的이다. 규범집의 「맞춤법」에서 :

- 2 장 형태부의 적기, 3 장 어간과 토의 적기, 4 장 합성어의 적기,
- 5 장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6 장 어근과 접미사의 적기,
- 7 장 한자어의 적기

처럼 分類하여 있음은, 통일안의 :

二章 声音에 관한 것, 三章 文法에 관한 것, 四章 漢字語, 五章 略語

등으로 分類한 것보다 合理的이고 整然하여 익히기가 쉽다.

이 歸結로서 五章 略語나 三章六節 語源表示는 따로히 項目을 세울 것이 아니라 單語構成의 分類의 該當되는 범주에 配屬시킬 것이요 三章三節의 規則 用言, 三章四節의 變格用言은 語幹과 語尾 사이의 形態變動으로 定位시킬 것이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1933年 무렵의 우리 國語學研究가 이르렀던 學問水準의 最善의 知識이 이룩해 낸 結晶이다. 그러나 40年 뒤인 오늘날의 國語學의 水準이 그레보다 훨씬 나아가 있을 것은

당연하다. 1933年 무렵에는 맞춤법에서의 基本되는 單位인 形態素가 아직 充分히 認識되어 있지 못했다. 맞춤법의 原則은 形態中の 基本形態를 擇하여 적고 그 異形態들은 表記에서 反映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같은 概念 또한 뚜렷이 把握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같이 바탕되는 言語理論이 보다 낮은 水準인 통일안에서는 그 術語使用이라든가 解說文章으로 하여 규범집에서 보다 서투르고 애매하고 알맞지 않은 것등이 있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통일안에서 「第七項 体言과 토가 어우를 적에는 소리가 變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勿論하고 다 제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 「第八項 用言의 語幹과 語尾는 區別하여 적는다」고 한 것을 규범집에서는 「제 8 항 어간과 토가 어울릴 적에는 각각 그 본디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解說文章이 더 가다듬어져 있다. 또는 통일안에서는 3章7節에서 品詞合成이란 術語를 쓰고 있으나 品詞란 單語의 文法的인 범주분류를 가리키는 概念이니 잘못된 用法이다. 같은 節의 28項에서 둘 이상의 「品詞가 複合할 적에는—」이란 말이 있는데 「結合」대신 「複合」이란 말을 써서 「合成」과 對立되는 「複合」이란 用語와 混同되기 쉽다. 규범집에서의 이의 該當規定에서는 正確하게 「합어는 매개 어근의—」로 적고 있다.

맞춤법규범집이란 맞춤법 規範을 한데 모아 놓아 이를 參照하거나 익히거나 할 때에 利用케 하자는 것이므로, 될수록 찾기 쉽고 의우기 쉽고, 가르치기 좋고 간편하여야 된다. 맞춤법 規範集으로

서의 이같은 구실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規範集은 그 規範條項의 分類와 配列이 合理的이고 解説文章에 군두더기가 없고 簡潔하면서도 理解하기 쉽게 쓰여져 있어야 할 것이며, 한데 묶을 수 있는 條項을 따로 떼어 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 규범집이 통일안보다 한결 다듬어져 있을 것도 짐작되는 일이다. 이를테면 통일안에서는 三章五節로 「바침」이란 한 節을 세우고 있지만 규범집에서 「제 2 장 형태부의 적기」에 드는 한 條項으로 들고 있어 配列이 더 합리적이다. 複合語의 規定에 관해서 두 맞춤법 規範集을 比較하면 통일안은 「第八節 原詞와 接頭辭의 “第三二項 接頭辭와 語根이 어울려서 한 單語를 이룰 적에는 소리가 接變하거나 아니 하거나 그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例 | 甲 | 乙 |
|---|------|-------|
| | 짓이긴다 | 짓니긴다 |
| | 엇나가다 | 언나간다 |
| | 셋노랴다 | 센노랴다 |
| | 싯누렁다 | 싯누렁다” |

와 같은데 규범집에서는 :

「제 5 장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제 19 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릴 적에는 각각 그 본디형태를 밝혀 적는다.

레, 덧신, 덧저고리, 만누이, 빗보다, 선웃음, 짓밟다, 참외, 헛디디다”

以上 통일안과 규범집을 對照하여 봄으로써 규범집이 통일안보다 簡潔 洗鍊되고 進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규범집이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여 두 차례나 갈고 다듬은 것이고 그 成立의 時期가 20年이나 差異가 있고, 통일안이 日帝下의 어려운 狀況 속에서 이루어진데 비해서 규범집이 北韓當局의 積極的인 支援 아래 이뤄졌으니, 當然한 얘기다. 南韓에서는 正統으로서의 금지로 통일안을 그냥 그대로 지녀 왔고, 또 미처 改訂의 機會를 갖지 못 했던 것이나 改訂의 機會가 있었다면 아마 규범집의 그것과 큰 다름이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南北韓에 統一된 맞춤법 規範集을 이룬다는 것은 結局 두 案을 綜合하여 보다 나은 規範集을 이룩한다는 것임을 알았는데, 이 때 주로 依拠하게 될 것은 「규범집」이 될 것도 避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問題를 提起코져 하는 것은 그러면 「규범집」은 完美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니, 端的으로 「규범집」은 利用하기에 아직도 어려운 바가 많다는 것으로써 証明이 된다. 이는 「규범집」의 体裁에서 온다기 보다 한글맞춤법 自体가 內包하고 있는 問題性이다. 맞춤법의 理解가 높은 文法的인 知識을 前提로 한다는 問題, 形態主義的 原則이 옳으나 하는 問題, 語源解釋限界의 애매함의 問題등은 한글맞춤법이 안고 있는 本質的인 것이며 眞正으로 完美한 맞춤법은 이 같은 問題의 解決이 있는 뒤에야 얻어질 수 있다.

우리가 南北韓統一맞춤법을 樹立한다 함은 단순히 두가지 것을

對較하여 그 중에서 보다 나은 것을 採擇한다는 作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機會를 계기로 하여 오늘의 知識으로서 이를 수 있는 完美한 것을 南北韓의 成果를 밟고서 이루어 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解釋해야 될 것이다.

